



주제 현대 문명과 전쟁

일시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12:30~17:00

장소 ZOOM 화상회의실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2:50~13:00 온라인 접속 (ZOOM 입장)

13:00~13:20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윤리교육

13:20~13:30 개회사: 정 갑영(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장)

제1부 외솔 기림 강연 (13:30~14:10) 사회: 임 상헌(학술이사)

사회: 임 상현(학술이사)

발표자	발표 제목
김 석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외술(최 현배) 학문과 사상: 녹아함침(융합)과 창조 생성론

14:10~14:20 휴식

제2부 주제 발표(1) (14:20~15:10) 사회: 이 승훈(편집이사)

사회: 이 승훈(편집이사)

발표자	발표 제목
김 동규 (캠브리지대학교 박사과정)	자연으로서의 전쟁, 문명으로서의 전쟁
정 원 (협동조합 균형사회 플랫폼)	뒤르케임과 전쟁의 사회학

제3부 주제 발표(2) (15:10~16:00) 사회: 임 상현(학술이사)

사회: 임 상현(학술이사)

발표자	발표 제목
김 영희, 김 요섭 (군산대학교)	남북전쟁의 영웅들: 크레인과 휘트먼
유 지윤 (연세대학교 박사)	세계대전기 와이즈만과 이승만의 독립

16:00~16:10 휴식

16:10~17:00 종합토론 및 폐회 사회 : 이 승훈(편집이사)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윤리교육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윤리교육은
한국연구재단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로
진행합니다.
연구윤리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홈페이지
(<http://hi1977.or.kr>)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RF 한국연구재단 KIR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목 차

01	표절의 이해	06
	1.1 출처표기의 중요성	08
	1.2 표절이란?	09
	1.3 중복게재의 범위	13
02	인용의 방법	18
	2.1 인용의 원칙	20
	2.2 대표적인 인용표기법	27
	2.3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31
03	유형별 인용표기 적절·부적절 사례	32
	3.1 도서	34
	3.2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회 논문	47
	3.3 연구보고서	68

04	온라인 자료 활용 사례	82
	4.1 영상자료와 이미지	84
	4.2 웹페이지와 블로그	92
	4.3 데이터 및 기타 자료	102

부록	118
인용표기 관련 질의응답 사례	120
참고문헌	130



|| 목 차

제1부 외솔 기림 강연

외솔(최 현배) 학문과 사상: 녹아합침(융합)과 창조 생성론

2

제2부 주제 발표(1)

자연으로서의 전쟁, 문명으로서의 전쟁

12

뒤르케임과 전쟁의 사회학

24

제3부 주제 발표(2)

남북전쟁의 영웅들: 크레인과 휘트먼

41

세계대전기 와이즈만과 이승만의 독립

49

제1부 외솔 기림 강연

외솔(최 현배) 학문과 사상
- 녹아함침(융합)의 창조 생성론 -

외솔(최 현배) 학문과 사상 - 녹아합침(융합)의 창조 생성론 -

김 석득(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앞에 두는 말

「현상과인식」이 올 해로 마흔다섯 돌을 맞이한다니 참으로 그 역사 깊음에 마음으로 기립니다. 더욱 「현상과인식」이 앞으로 해마다 ‘외솔 기림 강연’을 계획하고 있다는 창의적인 소식은 놀랍습니다. 이를 기리고 그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외솔의 학문과 사상’으로 삼고, 그 주된 논점을 ‘녹아합침(융합)의 창조 생성론’이라 하여, 외솔 학문과 사상을 속뜻(심층)의 생성적 차원에서 적어 보려 합니다.

1. 외솔의 정신 사상 세계

무릇 우리는 먼저 두 학회(한국인문사회과학회, 외솔회)의 모임을 통하여 더 높은 차원의 생성적 현상 값을 얻기 위한 ‘녹아합침(융합; $A+B=C$ 또는 Ab, Ba : 곧 합성의 구성 요소의 뜻은 각각 상대적 유연성(motivation relative)이 있는 뜻 요소이며, 이때 전체의 값은 부분의 값의 총화와 결코 같지 않다는 적용을 받아 새 뜻이 더불어 나오는 값이 된다는 원리)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서로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는 바 그 상대방의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녹아합침의 생성 값이 달라진다는 ‘함수론’($y=f(x_1\sim n)$: x 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값이 변하는($x_1\sim n$) 데 따라서 y 의 값이 따라 정해질 때 x 에 대하여 y 가 x 의 함수 관계에 있다는 수리적인 공식)을 인지해야 한다. 이 두 원리에 따라서 외솔의 학문과 사상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외솔은 핵심 정신 사상의 ‘속뜻’(핵, 심층 심리)으로,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의 열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핵심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외솔의 한 삶은 학문 연구와 실천적 운용으로 나타나되, 그 학문 연구와 실천적 연구에서 끝없는 녹아합침의 원리를 인지하

1) 김 석득, 「우리말 형태론」(서울: 탑출판사, 1992, 1994), 238쪽의 ‘구성요소의 뜻과 총합체의 뜻과의 관계’를 볼 것.

고 수행한다. 여기에서 외술의 한 삶은 무한한 창조의 생성의 힘을 발휘한다. 이 힘은 때와 열안(공간)을 넘어 나라 안과 나라 밖(국제화)으로 이어지되, ‘나’ 있음(존재)과 ‘우리’ 됨을 키운다. 이와 같은 외술의 한 삶은 참으로 속뜻의 무한 생성의 ‘나무를 짜임’(tree analysis)이라 할만하다. 마치 훈민정음이 겨레의 자주 정신과 민주 정신을 바탕으로, 조음음성학과 자연 철학 아래 ‘전환 무궁’(최소의 최대 생성의 철학) 곧 무궁한 생성 변화 창조의 힘을 지닌 것에 견주어 볼만하다, 한편 이러한 외술의 무한 변화 창조에 대한 참 값은 우리의 외술에 대한 인지 정도($x_1 \sim n$)에 따라 녹아합침의 값(y)을 달리 한다. 이러한 논리(필연적인 과제)에서 외술의 삶의 세계를 이 글에서 풀어 보기로 한다.

2. 외술 학문의 정신적 핵으로 본 큰 두 줄기: 학문 연구, 운용

외술은 무한 창조 생성의 사상적 ‘핵’인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을 바탕으로 학문 연구와 운용의 두 줄기를 이룬다(물론 학문 연구 또한 나아가서 이 운용과 한 틀 안에서 힘을 더한다).

‘학문 연구’는 말의 문제와 글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둘은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로 나뉜다. 공시적 연구의 본은 말의 연구와 글의 연구로 나타난다. 공시적인 말의 연구는 주장으로 「우리말본」(1937)으로, 글의 연구는 「글자의 혁명」(1947)으로 나타난다. 외술은 스스로 지은 수많은 저서나 논문 논설들²⁾에서 말의 연구로 「우리말본」을, 글자의 연구로 「글자의 혁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나의 저서를 말한다,” 「현대문학」, 1964년 9월 호). 글자의 통시적 연구의 본은 「한글갈」(1942)이다. 흔히 외술의 저 많은 연구 저서 가운데, 특히 큰 저서로 더 「조선민족 갱생의 도」(1926)와 「나라사랑의 길」(1958)을 들곤 한다. 물론 이들은 겨레 삶과 나라사랑의 근본을 둔 것으로, 나라 겨레가 처한 현상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정신적 ‘운용’의 차원이다.

‘운용’은,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의 현실적 현상을 직관함으로써 우리 겨레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삶의 자세를 이제와 그리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에선 다음과 같은 기본 저서가 있다. 교육적인 면에 서는 「페스탈로찌의 교육학설」(일문, 미간)과 「나라 건지는 교육」(1953)으로, 삶의 도덕적인 면에서는 「조선민족 갱생의 도」(1926)와 「민주주의와 국민 도덕」(1953)으로, 말 글 살이에서는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1951)과 「한글의 투쟁」(1954)과 「한글만 쓰기의 주장」(유고)으로, 그리고 나라 사랑의 본은 「나라 사랑의 길」(1958)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외술 학문의 바탕 아래서 주된 운용으로 전개 된다. 물론 이들은 모든 과정에서 여러 분야가 서로 녹아합침의 방법을 취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침내는 여기 우리 말글을 통한 민주화와 한글세대의 형성, 한말글의 과학적인 정보기계화와 한말글의 세계화의 무한 생성의 문이 열림을 짐작할 수 있다.

2) 최 현배, 「외술 최현배 전집」(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볼 것.

이제 위와 같은 ‘학문 연구’와 ‘운용’의 원리 추정을 좀 더 다음으로 살피기로 한다. 그 까닭은 연구와 운용 실천의 값($x_1 \sim n$)은 두 학회의 ‘녹아합침의 값(y)을 좌우한다는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외솔의 학문과 삶에 대한 이해의 정도 값이 외솔의 참 삶의 값과 좌우하기 때문이다.

되풀이하지만, 외솔의 한 삶의 속뜻 곧 핵심 바탕에는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핵은 일차적으로 우리 학문 연구와 정신적인 삶의 운용을 생성한다.

1) 학문 연구

(1) 「우리말본」

이는 말의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한 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그 말로써 들어가며 그 말로써 남기나니, 이제 조선말은 조선 사람의 창조적 활동의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성과의 축척의 끼침이다.”(「우리말본」 중에서)

이는 외솔의 말의 철학이니, 곧 민족주의 언어관이요, 말의 연구 목적은 겨레 문화 건설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말은 독특한 민족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일반론 아래, 우리말은 우리 배달겨레의 문화 창조의 기능적 존재인 배달말임을 영구불변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우리말본」 ‘들어가기’에서). 이와 같이 말본은 각 국어를 따라 다르지 않을 수 없다. 곧 외솔은, 말의 본은 각 국어의 특수 양상을 띠는 쪽에 선다. 이러한 관점은 훔볼트(Humboldt, Karl Wilhelm)의 언어철학관(모든 언어의 차이는 각각 독자적인 세계관의 차이로 보고, 이와 같은 언어는 다만 있음(존재)으로만의 것(ergon)이 아니고 작용하는 창조적인 힘(energia)으로 봄과 일치하는 바가 있으며,³⁾ 또한 이러한 말의 철학은 스승인 주 시경 선생의 ‘말-글-얼 일체’의 철학관과 같다. 다음은 이러한 예증이 된다.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 러함으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느니라.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러짐이 없고 자리를 받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키나니라.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어지고 말과 글이 다스려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려 지나니라. ...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은 홀로 서는 나라가 됨의 특별한 빛이라. 그 빛

3) 김 석득, 「외솔 최 현배 학문과 사상」(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0), 167쪽.

을 밝히면 그 나라의 홀로 서는 일도 밝아지고, 이 빛을 어둡게 하면 그 나라의 홀로 서는 일도 어두워 가나니라.”⁴⁾

이러한 ‘말-글-얼 일체철학’과 사상 아래, 외솔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창의적 학문과 실천으로 생성한다. 여기에서 ‘연구는 다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겨레 문화의 역사적 창조를 위한 연구’라는 언어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말의 철학을 깔지 않고 다만 말만을 연구하는 쪽과는 근본의 차이가 있다.

말의 연구에서, 말본 연구로 주 시경의 국어 문법의 분석주의 강의를 들어 거쳤지만, 외솔은 그 체계를 받으면서 말본의 갈말은 모두 주 시경 말본에 따라 독창적인 순수 우리말 한글 용어로 짓되, 그러나 새로운 언어 이론에 따라서 준종합적 체계를 확립한다. 말본의 언어 이론이란 논리학과 심리학과 공통 관계가 있음으로 말본에서 이들과의 녹아합침(융합)의 연구의 필요성을 외솔은 암시한다. “논리학과 심리학이란 세계 공통적인 이론이다. 그러나 말의 본은 각 국어를 따라 독립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논리학과 심리학은 인류 공통의 것이기에 오히려 말본 연구에서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가꾸로 말본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우리말본』, 55~56쪽). 여기에서 말본 연구에서 ‘녹아합침의 원리’를 찾는다. 따라서 말본의 연구는 논리학과 심리학에서 독립한 학문이 된다. 더욱 나아가서 말본 연구에서 말의 낱덩이의 ‘심리적 인지’, ‘논리의 뒷받침’ 등과의 녹아합침에서 창의된 것으로, 이른 바 외솔 말본에서 창안된 ‘준종합체계’와 ‘잡음씨’(지정사: 긍정-부정) 체계의 창안의 생성을 보잡을 수 있다.

이러한 말본은 운용 면에서, 우리말의 과학적인 ‘준종합체계’를 구성하여 실제 교육과, 우리말 사전과, 맞춤법의 바탕으로 실현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국제화에도 그 표준으로 실천 운용된다. 이 학문 연구 면에서의 운용은 모두 ‘뒷글의 운용 면’에서 더욱 합하여 한 틀 아래서 세(힘)를 더한다.

(2) 「한글갈」

외솔의 학문은 언제나 겨레 나라사랑과 떼어 낼 수 없다.

“말은 독립의 성이요 말이 없으면 겨레가 있어도 겨레가 아니요, 터전이 있어도 터전이 아니라, ‘글은 곧 말’이니 이 또한 같은 이치” 라고 인지하는 마음의 속뜻이었다. “한글은 생명이다”라는 말은 외솔의 한글에 대한 속뜻의 상징적 표현이다. 그리하여 한글이 지적 산물 중 가장 위대한 것으로 확신함으로써 연구한 한글갈은, 선각의 유업을 받아서 이를 이어 가려는 목적으로 한글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 이룩한 것이니, 이를 짓고 나서, “나는 나의 생명의 댕가가 이 세상에 남게 된 것을 스스로 위안을 느꼈다”고 했다.

4) 주 시경, “한나라말,” 『보충 친목회보 1호』(융희 4년, 1910년 6월 19일).

한글같은,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이론적 연구와 연구역사적인 것과 음성학 및 문자학의 ‘통시적인 연구’와 함께 공시성을 띠는 ‘견주는 한글갈(비교 정음학)이 현대 언어과학과의 녹아합침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의 이해의 값은 한글갈의 참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과학적 참 이해가 연구의 열쇠로 주어진다. 외솔의 연구에서는, 한글이 때(시간) 열안(공간)의 무한 생성의 기능으로 우리 됴의 있음(존재)의 보존과 국제화에 이르기까지 있음(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외솔은 이 한글갈을 바탕으로 선각들의 빛나는 업적들을 죄다 캐내어 ‘연구사적 눈’으로 소개 평가하되, 이를 외솔 스스로의 이론으로 주도하게 펴 나아간다. 이에 ‘우리 말글의 연구사의 줄기’를 밝게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실천적 ‘운용’으로, 현실의 한글에 대한 현상을 바르게 교육하는 일, 삶에서 한글을 올바르게 오로지 쓰는(한글전용) 일, 한글의 정보 기계화, 한글 세대의 형성과, 그리고 자유 민주화와 세계화의 길들이 열리고 있음을 주시한다.

(3) 「글자의 혁명」

외솔의 인지 능력의 무한 생성의 창조적 현상은 한글의 ‘전환 무궁’의 훈민정음의 속성과 일치한다. 그 결과로 「글자의 혁명」(1947)을 생성하게 된다. 이는 함흥 형무소 안에 서의 ‘한글 가로풀어쓰기 연구’를 해방으로 출옥한 후에 펴 낸 것이다.⁵⁾ 이는 더욱 「한글 모죽보기」의 1913년 ‘조선어강습원’의 강사 주 시경 명의의 ‘증서 일람’의 서식에 따르되 더 발전시킨 것으로, 한글로 오로지 가로 쓰되, 한글의 음운 글자의 본질을 살리어 ‘가로 풀어쓰기’를, 그리고 그 풀어쓰기에 편리한 글자의 모양을 다듬은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눈의 수평적 신체 구조학’과 ‘눈알의 좌우 움직임의 시각의 원리’, ‘팔굽 움직임의 생리적 원리에서 본 심리학적 착각의 원리’(수직선이 수평선보다 길게 보임으로써 생각하는 힘의 차이가 있다는 심리)와 ‘기계화의 원리’가 모두 녹아합쳐 이루어진 과학이다. 더욱 외솔은 한글의 기계화를 위하여 앞서 미리 이루어 놓은 작업이 있다. 그것은 ‘한글의 낱낱의 글자의 쓰이는 변수(빈도수)’를 조사 발표한 것이다.⁶⁾ 이는 가로쓰기와 타자기 글자판의 글자 배치에 바탕이 된다. 외솔의 이러한 일들은 안과 의사요 기계학에 밝은 공 병우 님과의 녹아합침의 차원인 한글 타자기로 생성된다.

이것의 실천적 ‘운용’은, 한글의 전용과, 한글의 가로 풀어쓰기와, 한글의 기계화와, 가로 문화의 형성 등 정보문화는 물론 한글세대와 민주 사회의 형성, 그리고 한글의 국제화와 인류문화에 실천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된 것이다.

훈민정음의 무한 변환의 바탕이 여기에까지 이르매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으로 생성하는 창조 변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주목해야 한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김석득, “외솔 선생님 돌아가신 선한돌에,” 「나라사랑」, 130집(2021)을 볼 것.

6) 「朝鮮語文研究」(延禧專門學校 文科 研究集 第一輯, 1930), 100~109쪽.

2) 운용: 말글의 학문 밖의 생성적 운용

운용은 외솔의 삶의 속뜻이 학문적 연구와 함께 ‘최소의 최대 생성되는 한 과정’이다. 학문 연구에서 오는 운용이 이에 합하여 한 틀 안에서 힘(세)을 더한다.

이것은 교육적인 면, 도덕적인 면, 말글살이 면, 그리고 나라사랑의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교육: 「페스탈로찌의 교육학설」, 「나라 건지는 교육」

앞의 것(교육학설)은, 외솔이 대학에서 사회학의 뜻을 두었다가 민족 개조와 사회개혁의 근본책이 교육에 있다는 교육에 대한 중요한 인식과 우리 사회의 무기력과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절박성의 인식에서 철학, 윤리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배우면서 교육학의 전공으로 옮기고, 그 졸업 논문으로서 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1925). 이것은 「현대평론」(1927) “페스탈로찌의 교육 사상”으로 소개되고, 「나라 건지는 교육」(1963)에서 “페스탈로찌의 교육 사상”으로 뒤쳐 나왔다. 외솔은 교육의 원리로 룯소의 자연 원리와 페스탈로찌의 자연의 ‘자발적 원리’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그 원리에서 교육의 한 마당인 학교에서의 인식의 힘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식에는 자주 자립의 능력이 있어, 감각 기관의 직관의 작용으로 본질적인 자기 개성을 창조한다는 ‘직관의 원리’를 세운다. 외솔의 삶과 학문에는 이 철학이 받치고 있다. 더욱 이는 그 때의 절박한 현상으로 인지되는 「나라 건지는 교육」으로 펼쳐진다. 여기에서 외솔의 삶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논지의 힘은 이러한 차원에서 운용됨을 실감한다.

(2) 도덕: 「조선민족 갱생의 도」, 「민주주의와 국민도덕」

그때의 불우한 민족의 역사적인 현상을 직관하고 인식한 외솔은 겨레를 다시 살리는 길로 「조선민족 갱생의 도」(1926)를 쓴다. 이 글은 ‘병리학적 진단’으로, 민중이 중병과 쇠약증에 걸려 있음을 직관하고, 그 결과 용기의 없음, 활동성의 모자람, 그리고 신념의 모자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도덕적인 재무장한 경제 진흥과 생활 방식의 개선, 우리 고유 문화의 떨침, 우리 말글의 연구와 교육으로 등의 문제로 새로운 창조, 생기의 살음, 신념을 병리학적으로 풀이한 것이다. 도덕적인 재무장은 「민주주의와 국민도덕」(1953)으로 구체화 된다. 세월이 매우 어수선하면 늘 하는 말씀이 있다.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다”이다. 도덕적인 참사람 됨의 노릇을 못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러한 속뜻은, 다시 후학들의 삶에 호소할 힘의 원천으로, “청년아 이미 살려는 뜻을 떨치었거든 모름지기 앞으로 나아갈 이상을 세워라. 이상은 청년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세계를 구하려는 청년은 모름지기 먼저 제 나라를 구하고 세계로 진출

하라”면서 이상의 꿈이 있는 참스러운 청년에게 나라의 장래를 여는 길로 이끈다. 여기 오늘 내일의 참 일꾼인 청년들에게 바라는 발전관과 세계관의 눈을 본다. 이 눈은 바로 외솔의 민족관과 세계관이기도 하다.

(3) 말글살이: 「우리 말 존중의 근본 뜻」, 「한글의 투쟁」, 「한글만 쓰기의 주장」

“말글은 새 문화의 씨앗이다.”라고 확신하는 외솔은, 사람과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와 말글과의 관계에서 말을 바르게 다스리는 운용의 이론의 저서로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1951)을 펴낸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말은 이성으로 본능을 지배함으로써 문화 창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고 더욱 그 창조 능력을 높이는 이상의 요체임을 전제 아래, 사람과 말, 겨레와 겨레말, 말과 창조 생활을 본으로 하여 국어 운동의 목표와 우리말을 깨끗이 하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는 우리말 순화, 곧 말다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써 외솔의 국어 정책과 순화의 이론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창조적인 정신을 가진 있음(존재)으로써 말을 애지어(창조)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말을 애지어낼 때에는 ‘직관과 연합’이라는 심리 활동 곧 직관의 심리와 잇따라 형성하는 연합의 ‘심리적 유추’를 세운다. 이것은 사람의 말의 창조적 머리가 그 반동의 머리와 전면 충돌하는 공리이다. 배달의 말은 배달 문화의 연모이요 창조의 결과물이라고 역설한다. 이 설은 가공이 아니다. 여기에서 외솔은 지적인 바탕의 말다듬기의 힘을 깨친다. 지식없는 열정은 빛없는 불과 같아서 외솔의 이와 같은 열정적 주장은 결코 빛없는 불이 아니다. 외솔의 주장에는 반드시 마땅한 지적인 치밀한 논리와 철학이 바탕하는 논지가 앞서고, 또한 이를 실천에 옮겨 냄이니 외솔의 주장은 밝게 빛나는 불이다. 여기에 말은 깨끗하고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고, 쉽고 풍부하게 많이 새말을 창조해야 한다는 실체적 말다듬기의 원리가 보인다. 외솔은 ‘열 개의 새말을 지어내면 대여섯이 살고 백 개를 지어내면 팔구십 개는 산다는 논리를 깔아 놓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외솔은 ‘초생물학적인 언어관’, 곧 말글은 생물의 죽음과는 달리, 불들어 가꾸면 죽었다가도 되살아난다는 말글의 힘의 철학을 지닌다. 그리하여 스승 되는 주 시경의 새말 만들기의 본과도 일치한 외솔의 말본 용어나 그 밖의 말의 삶에서 일관된 실천을 한다. 그리고 이 실천적 현상은 오늘의 혼란한 우리 말글의 현상을 쉽고 깨끗하게 바로 잡는 데 길잡이 노릇을 크게 하고 있다.

한편, 외솔은 ‘한글파동’(정부의 한글간소화안에 대한 논쟁) 등 우리말 글의 혼란한 사회 현상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거슬리는 일이 말과 더불어 글자에 이르는 것을 직관한다. 이것이 「한글의 투쟁」(1954)을 짓게 된 동기이다. 외솔은 사랑하는 한글을 위해 모든 삶을 바친다고 하면서, “자유는 사람에게 절대적 요구이니 인류의 역사는 이를 싸워 얻은 기록이요, 투쟁은 만물의 어머니다”(윗글, 머리말) 라는 신념 아래, 겨레의 독립 자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한글 쓰기의 반대론자나 제한론자, 그리고 정치적 위정자의

한글 간소화 안 등에 대한 비판을 깊은 이론으로, 겨레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한글로만 쉽게 쓰기의 까닭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글만 쓰기의 주장」(유고, 1970), 「배달 말과 한글의 승리」(1966)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외솔은 늘 이러한 지적인 배경이 든든할수록 생성의 힘과 설득하는 힘의 값이 커진다는 ‘함수론’으로 뒤받침하고 있다.

(4) 나라사랑의 길

본디 외솔의 한 삶의 정신의 속뜻(심층 세계)에는 나라사랑의 열이 자리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런데 「조선민족 갱생의 도」에서 표방된 생기는 온데 간 데 없고, 애국자연하는 이들만이 보이고, 거짓과 우악이 들어차고, 유력 특권이 우방의 원조를 독차지하고, 국민의 가난과 노고는 아랑곳없으며, 자유민주주의는 말의 표방일 뿐, 나라의 장래가 근심되는 현상을 외솔은 접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마음에 알아차린(지각, 인지) 외솔은 참된 「나라사랑의 길」(1958)을 지어 나라사랑의 본질을 토로한다. 곧 떳떳한 나라사랑이란 개념은, 나라사랑은 ‘나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를 구원하여 독립 자주를 보전하는 것은 자기 인격의 존엄을 보전함이요, 자손만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일치하는 나라사랑의 개념’임을 외솔은 판단한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은 나라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이익은 곧 개인의 이익이 되지만, 개인의 이익은 곧 나라의 이익이 된다는 반드시 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는 특히 개인의 이익이 사리사욕일 때 더욱 그렇다고 한다. 외솔은 청년에게 고한다. “불은 어두움을 쫓고, 소금은 짙음을 막는다. 청년은 불과 소금이 되어 암흑한 이 나라를 밝히고 씩여가는 이 나라를 깨끗이 하자. 오늘의 한배 나라는 촛불에 타는 청년을 부르며, 소금으로 짠 젊은이를 기다린다”고. 그리고 나라사랑의 참 모습은, 정부나 정당이 아니라 나날의 평범한 삶에서, 개인의 존중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3. 마무리

‘외솔의 글’은 인문사회과학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분야에 지적 중요한 자산이다. 아울러 ‘인류 문화의 자산’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에서, 한국인문사회과학회가 외솔회와 연계되는 연구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모임은 한 차원 높은 과정이라고 본다. 이 높임의 과정은, 외솔의 학문 연구와 그 운용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두 학회가 함께하는 녹아합침의 힘의 원리’와 ‘함수론의 원리’와도 관계된다. 이제까지 논한 글은 이러한 두 원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주된 논점은 녹아합침에 두고 있는 것이다. 위 두 학회의 높은 차원의 성공을 바라면서 부족한 대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참고 문헌

- 김 석득, 「우리말 형태론」(서울: 탑출판사, 1992 1쇄, 1994 2쇄)
- 김 석득, 「외설 최 현배 학문과 사상」(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0)
- 김 석득, 「우리말 연구사」(파주: 태학사, 2009 초판, 2018 재판)
- 김 석득, “외설 선생님 돌아가신 쉰한돌에,” 「나라사랑」, 130집(2021)
- 최 현배, 「외설 최현배 전집」(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한글모죽보기」(1913)
- 「朝鮮語文研究」(延禧專門學校 文科研究輯 第一輯, 1930)

제2부 주제 발표 (1)

- ▷ 자연으로서의 전쟁, 문명으로서의 전쟁
- ▷ 뒤르케임과 전쟁의 사회학

자연(自然)으로서의 전쟁, 문명(文明)으로서

김 동규(캠브리지대학교 박사과정)

제2차세계대전이 유럽전선에서 종식된 것이 1945년 5월이었고, 이후 전쟁은 유럽인들에게 남들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함에 따라 거의 77년만에 유럽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력이 계발되고 세계화를 통해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21세기야말로 인류가 전쟁이 아닌 다른 평화적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었는데, 이런 기대는 21세기 벽두에 시작된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시리아내전,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나 버렸다. 전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인류 문명의 발전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한가? 본 발표는 전쟁의 본질에 대해 고찰해보면서, 자연적 영역에 속하는 전쟁의 본질(本質), 그리고 문명에 속하는 전쟁의 양태(樣態)에 대해 간략히 논해본다.

1. 작위(作爲)와 자연(自然)

문명은 작위(作爲) 또는 인위(人爲)로서 인간이 자연(自然, nature)에 변형을 가함으로써 달성된다. 문명(文明)은 독일어, 영어의 Zivilisation, civilization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인데, 문명의 '문(文)'은 원래 의미가 '무늬'(또는 '장식')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바탕' 위에 무늬 등을 그리거나 새겨넣은 것을 말한다. 즉 文(무늬)이 있으려면 그것이 종이든 천이든 '바탕'이 되는 그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이다. 독일어, 영어의 Zivilisation이나 civilization은 '무엇'인가를 '문명화한다'는 의미의 타동사(他動詞) zivilisieren, civilize에서 파생된 것인데, '문명화'는 허공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대상인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인위적(artificial)으로 변형시킨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명화(civilize)의 대상 즉 '인위' '인공' '작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 무엇'을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같은 사상가들은 '자연(nature)'이라

고 부른다. 인간의 손길(art)이 닿지 않은 본래의 바탕이 바로 자연인 것이다. 자연에 인간 손길(art)이 닿아 변형이 일어나면 그만큼 ‘artificial’(인위적, 작위적, 인공적)이 된다. 문명은 이런 ‘artificial’의 영역에 속한다. 즉, 문명화라는 손길이 본래의 바탕 즉 자연에 닿아 변형을 일으키는데, 이 변형의 결과를 문명이라고 부른다. 일부에서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해 문화(文化, culture)와 문명(文明, civilization)으로 달리 부르기도 하지만, 인위적, 작위적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문명으로 부르면서 자연과의 차이 및 관계에 집중하고자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명이라는 것의 반대쪽에 그 대상(또는 객체)이 되는 자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문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자연이 완전히 변형되어 버리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자연은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나온다. 필자는 자연이 변하지 않을 것,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쟁이 계속될만큼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타인들과 ‘갈등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정치사상가들의 논의를 소개하며 이러한 생각을 전개하려 한다.

미국 등에 플라톤 등 고대정치사상을 소개하고 자연법이론가로도 유명한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는 서양의 근대사상사가 자연을 지워가는 역사였고, 이에 따라 정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 역사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근대적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 고대 정치사상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근대인들이 세상의 ‘본바탕’인 자연을 망각해간다는 것은 주관적 의지(意志, will), 결단(決斷, decision)이 부각되고 자신만만하게 되면서 자연에 함부로 맞서고 제멋대로 포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는 유태계 독일인으로서 나치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나치즘과 파시즘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했고, ‘자연의 망각’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주장을 중국 신유학(新儒學), 특히 주자학(朱子學)의 용어를 빌려 설명해보면, 서양의 정치사상이 ‘자연의 법도’(natural law, law of nature) 관념에서 이탈해가는 과정은 대략 3단계로 이뤄졌다. 중세 후기까지만 해도 자연의 법도인 이성(理性: reason)이 인간이 만든 법 위에 존재했다. 마치 인간이 디자인한 건축물이 오래 가는 것은 인간세상 위에 있는 물리적 법칙에 걸맞기 때문인 것처럼, 인간의 법이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자연법’(natural law) 또는 ‘자연의 법’(law of nature)에 걸맞기 때문이라는 관념이 강했다. 성리학(性理學)에서 세상(우주)을 규율하는 법칙을 理라고 하고, 사람을 규율하는 법칙을 性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중세 후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등이 말하는 이성(理性)과 비슷한 것이다. 서양의 ‘reason(ratio)’을 理性으로 번역한 것은 가톨릭 사상과 성리학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등을 거치면서 우주적 법칙을 뜻하는 ‘理’를 버리고 인간적 법칙, 즉 ‘性’(human nature)만을 바탕으로 해 정치사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용어도 자연법(natural law)에서 자연권

(natural right)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했다. 우주적 법칙에서는 이익을 보는 권리 권자가 없더라도 당위가 발생한다. 예컨대, 큰 바위가 떨어져 길을 막고 있으면 우리는 그 바위를 우회해야만 한다. 우리가 우회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 이익을 향유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회 ‘해야만 한다’. 이 우회 ‘해야만 한다’는 영어, 독일어의 ‘should, sollen’이 적용되는 당위(當爲)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런 정치와 법에 적용되는 물리적 법칙을 따라 국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사회생활을 한다. 이것이 중세 후기까지의 정치사상이었다. 그런데, 토마스 홉스에 와서는 우주적 법칙(理 또는 理性)이 아닌 사람의 법칙(性)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자기보존’(自己保存, self-preservation)의 욕구라고 했다. 이 자기보존의 욕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연권’(natural right)이고, 모두는 이것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타인들은 이 자연권을 존중해야 하고(당위), 그 존중에 따라 나는 자기보존을 누릴 수 있게 된다(권리, 이익). 홉스에 와서 정치질서의 바탕이 되는 ‘자연’의 범위가 우주에서 사람으로 축소된 것이다.

그런데, 루소(Jean-Jacques Rousseau)에 와서는 이 ‘자연권’도 슬며시 사라지기 시작한다. 초기 루소 저작에는 홉스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자기보존’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지만, 스파르타 애호가이기도 한 루소는 ‘자기보존’ 즉 ‘죽음의 공포’를 종종 부정한다. 그는 ‘다른 동물들은 평생 한 번 죽지만, 인간은 여러 번 죽는다’면서 죽음의 공포를 조롱한다. 죽음의 공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이 타락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루소는 자신의 후기 저작 『사회계약론』에서는 자연을 언급하지 않고 ‘사회계약’(契約, social contract)에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에밀』에서 주로 자연을 얘기하던 루소는 이제 인간적 계약을 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레오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서양정치사상이 ‘자연’을 폐기하고 결국 니체(Nietzsche)와 칼 슈미트(Carl Schmitt) 등을 거치면서 의지와 결단을 중시하는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이 나치즘, 파시즘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한다. 닛이 풀려 자연이라는 땅바닥에서 이탈한 배가 인간들의 의지와 정념의 폭풍 속으로 빠져들어 결국 침몰했다는 이미지가 스트라우스가 본 서양 근대사상사의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⁷⁾ 스트라우스는 자연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자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한다. 이것은 칸트가 물자체(物自體: Ding an sich)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물자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不可知)라고 한 것과 같다. 스트라우스의 자연과 칸트의 물자체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마르부르크 신칸트주의 학파의 리더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였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칸트의 영향이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7) Leo Strauss,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

9) 참고

2. 개인간의 전쟁에서 그룹간의 전쟁으로

왜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평화를 노력해서 만들어야지 왜 전쟁만을 논하고 있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평화가 아닌 전쟁만을 논하는 사람들은 혹시 호전주의자(好戰主義者)라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사람의 선행’을 믿지 않고 자꾸 서로 불신하고 경계하도록 조장하는가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토마스 홉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현관문 열어두고 잠자리에 듭니까?’

나의 추론에 대해 의심을 품는 그 사람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여행갈 때는 무장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가려고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문단속을 한다. 집에 있을 때도 금고 문을 단단히 잠가 둔다. 여행지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도 한 나라 백성인데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무장하고서야 말 등에 오르는 것일까? 이웃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문단속을 것처럼 철저히 하는 것일까? 집안 아이들과 하인들을 어떻게 여기기에 금고 문을 잠가 두는 것일까? 내가 말로써 인류를 비난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행동으로써 인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⁸⁾

큰 바다가 작은 빗방울을 모여 만들어진 것이듯, 세상의 모든 갈등(큰 전쟁조차도)은 사실 이러한 작은 공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보존’에 대한 욕망이 있다. 나 이들과 병들어 죽는 것도 두렵지만 타인의 폭력에 의해 ‘비명횡사(非命橫死: sudden death)’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아무리 신체적으로 우월하더라도 약한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명횡사’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천하장사라도 잠 들었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음식에 탄 독약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인간은 모두 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항상 비명횡사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산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보존의 욕망, 그리고 비명횡사의 공포를 함께 갖고 있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려고 국가를 만들고 국가의 질서 아래서 걱정 없이 생활하려 한다. 홉스는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든다고 했다. 자신들의 힘을 국가(“리바이어던”)에 다 몰아주고 그 국가가 정해진 질서 아래서 평화롭게 생활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홉스의 ‘국가’는 경찰같은 국가이다. 엄격한 경찰의 감시 아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사상가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말하자면 ‘경찰국가론’에서 ‘군대국가론’으로 홉스의 정치사상에 수정을 가한다. 칼 슈미트의 국가 모습은 병사(국민)들이

8) 토머스 홉스, 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파주: 나남, 2008), 172쪽

단합해서 적과 싸우는 군대에 가깝다. 그가 보기에 흡스적인 “만인과 만인의 전쟁”(warre of every one against every one), 즉 개인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전쟁상태가 실제상황에서는 그룹 대 그룹의 전쟁으로 변한다. 상대적으로 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예컨대 부부, 가족, 형제, 친족, 친구들끼리 그룹을 결성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맞선다는 것이다. 인간이 타인을 불신해서 전쟁상태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자연적’ 본성 때문이겠지만, 그룹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 적 그룹에 대적할 것인지는 ‘인위적’인 것이 되는데, 칼 슈미트는 이렇게 ‘누가 우리인지’(Who are we?) 그리고 남인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라고 불렀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은 친구와 적의 구분에 있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조차 외부에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적과 맞서기 위해 내부적으로 우정(friendship)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예전에는 약했던 국민적 단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칼 슈미트가 말하는 적(남)과의 갈등·투쟁을 통해 내부적 단합이 강화되는 매우 ‘정치적’ 현상이다. 그의 사상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性, human nature)에서 기인하는 갈등 또는 전쟁상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 갈등의 전선(戰線)이 어떤 그루핑(grouping) 사이에 만들어질 것인지가 변할 뿐이다. 과거 중세시대에 유럽 귀족들끼리 지역을 뛰어넘어 우정 또는 연대의식이 형성됐는데, 이에 따라 갈등의 전선이 귀족과 평민 사이, 영주와 농노 사이 등 신분간에 강하게 형성되기도 했다. 훗날 국민국가의 등장으로 국민국가 사이에 주(主) 갈등전선이 형성되자 신분 사이의 갈등은 줄어들었다. 칼 슈미트의 이러한 생각은 물리학 용어를 빌려 ‘갈등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칼 슈미트에게 있어서, 갈등(규모가 커지면 내전이나 국제전으로 비화)은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 없고, 단지 적절히 ‘관리(管理)할 수 있을 뿐이다. 관리라는 한자어의 관(管)자는 ‘대나무 파이프’를 의미하는데, 관리는 아마도 대나무 파이프를 흘러내려가는 물을 관리하는 것, 수리(水理)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즉,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인간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대나무 파이프를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⁹⁾ ‘관리’라는 한자어의 이러한 이미지가 칼 슈미트가 생각하는 정치의 이미지에 가깝다. 이렇게 갈등은 없앨 수는 없고 그 물길을 잘 관리 할 수 있을뿐이라는 생각은 칼 슈미트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근대 정치사상의 비조(鼻祖) 마키아벨리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마키아벨리도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고, 갈등의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사론고』에서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이 잘만 관리된다면 공화국의 좋은 입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즉, “모든 공화국에는 민중(평민)과 귀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기질이 존재하며, 자유를 떠받치는 모든 (좋은) 입법은 양자 간의 갈등에서 기원(起源)한다.”¹⁰⁾

9) Carl Schmitt,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참고.

물리적 에너지든 식욕이든 성욕이든 성리(性理 또는 理性) 즉 자연(自然)에 속하는 것은 없앨 수는 없고 잘 관리해 좋은 결과로 이끌어야 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인간 사이의 갈등과 반목은 자연에 속한다. 이것이 그룹간의 갈등으로 변하면서 어떤 경우엔 가문간 싸움, 깡패집단간 패싸움, 젠더간 갈등, 계층간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국민국가간 갈등, 인종간 갈등 등으로 변하며 이것이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 그 규모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전쟁/갈등의 다양한 형태인 것이다. 물론, 홉스식의 국가론을 따르면, 모든 인류가 거대한 국가(리바이어던)의 통제를 받으면서 국제전(國際戰, international war)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이 억압적 관료제 아래에서 숨죽이며 살 수도 있으며, 또한 공화국 시민처럼 그 국가를 ‘내 나라(matria mea)’로 여기며 자유롭게 살 수도 없을지 모른다. 신분간의 갈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과거 강력한 황제와 관료제 아래에서 평화를 누렸던 중화제국의 평화가 홉스적인 리바이어던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개인들에게 예악(禮樂, manners and arts)이나 기독교적 금욕(禁慾) 같은 ‘평화의 기술(arts of peace)’을 즐기거나 받아들이게 해 개인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갈등에너지를 줄여 ‘제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회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양태의 그루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갈등전선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전선에서 싸움이 발생한다는 홉스와 슈미트의 지적은 부정하기 어렵다.

3. 국제관계와 자연: 카를로스 곤 르노회장 체포를 둘러싼 일본-프랑스 갈등 사례

인간의 갈등에너지가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전선(戰線)을 형성하면, 그룹은 적과 잘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그룹 내부를 단결시키려 한다. 이것이 그룹 내부에 질서를 가져온다. 반면,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은 그룹과 그룹 사이의 전선에서 폭발적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다. 그룹 내부의 조직과 질서화는 문명의 발전, 정치적 지혜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며 전개될 것인데 반해, 그룹들 사이의 갈등전선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수천년 전이나 다를 바 없이 거칠고 황량한 무법상태를 보여준다. 질서는 그룹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국제관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2018년에 발생했던 프랑스 르노그룹 회장 카를로스 곤(Carlos Ghosn)을 둘러싼 일본과 프랑스의 갈등에서 정치적 갈등의 거칠고 황량한 무법적 모습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곤회장은 일본의 자동차업체 3위인 닛산(Nissan)을 르노가 인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명 기업가이

다. 그는 만년 적자로 휘청이던 닛산을 인수해 합병까지는 아니지만 르노그룹 휘하에 두는 이른바 ‘얼라이언스(alliance)’를 단행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경영에 따라 닛산은 흑자로 전환되었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는 세계 자동차업계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그런데, 머지않아 르노 본사의 곤 회장과 일본의 닛산 경영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곤은 닛산을 합병하려했고, 일본측 경영자들은 이에 반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닛산의 일본경영자편에 서서 이 문제에 개입했다. 곤 회장이 도쿄에 도착했는데, 도쿄지검이 그를 체포하고 구속해버린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탈세, 횡령 등의 ‘위법’을 거론했지만, 근본문제는 경영권을 둘러싼 르노와 닛산의 갈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르노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회사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가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기도 한 회사이다. 따라서, 이 갈등은 곧바로 프랑스정부와 일본정부간의 갈등이 되어버렸다. 국가간의 문제, 즉 국제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닛산과 일본정부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경영권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이다.¹¹⁾ 일반적으로 국내문제였다면 법원에 호소했을 것이지만, 무정부적 성격이 강한 국제관계에서는 호소할 법원이 없다. 이러한 팽팽한 대립의 와중에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고위관계자가 프랑스의 공항에 내렸는데, 프랑스 경찰이 이 일본측 인사를 체포해버린 것이다. 도쿄올림픽 유치할 때 ‘비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정부는 원시적인 ‘정치적 기술’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비리’ 언급은 도쿄올림픽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다. 이러한 체포에 맞선 체포가 효과가 있었던지, 곤 회장은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주거제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물론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던 도쿄올림픽 관계자도 풀려났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이 에피소드는 거칠고 황량한 ‘자연’에 속하는 국제관계의 한 단면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곤 회장이 ‘위법’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고,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 뇌물공여나 향응제공 등 비리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유치할 정도로 ‘힘 대 힘’으로 맞서는 일은 국제관계에서는 너무나 흔한 일이어서 진실에서 그리 멀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곤 회장은 그 다음해 2019년 12월에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도쿄 거주지에서 탈출한 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무법과 무법의 연속극이었는데, 국제관계의 적나라한 모습이 잘 드러났던 에피소드라고 생각된다.

4. 주인의 길, 노예의 길: 헤겔적 ‘주인-노예 변증법’ 검토

경우에 따라 평화애호와 자기보존은 노예적일 수 있다. 현재 상태(status quo, 現狀)가 나에게 자유와 평등을 만끽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상태라면 괜찮지만, 불의한

11) 대표적인 기사가 "Nissan Pushes for More Power in Post-Ghosn Alliance", Bloomberg.com (23 November 2018).

(unjust) 상태라면 현재 상태를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평화는 현상유지(現狀維持)를 의미한다. 현상(즉, 현재 상태)에 대해 내가 ‘아니오’라고 부정하는 의사를 표하는 순간부터 나와 현상유지를 원하는 기득권 사이에 갈등은 시작된다. 갈등은 강도가 더해지면서 투쟁이 되고, 전쟁이 된다. 그리고 현상타파(現狀打破), 즉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일이 너무 격렬해져서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데, 나의 평화애호와 자기보존 욕구가 현상타파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평화는 현상유지다.

헤겔의 이른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코제브(Alexandre Kojève)와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를 통해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욕구는 ‘인정(recognition) 받으려는 욕구’라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 명이 마주 선다. 이들 모두 상대방이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튀모스(thymos: pride 또는 anger로 번역되기도 함)에서 이러한 인정욕구가 나온다고. 그런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기 싫어한다. 이것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목숨을 건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으로 이어진다. 잘못하면 살인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 명이 머리를 숙인다. 그는 생존 즉 자기보존을 선택했고, 상대방을 ‘인정’하고는 그의 노예(slave)가 된다. 노예가 됨으로써 목숨을 구한 것이다. 끝까지 이 치킨게임에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보였던 상대방은 이제 주인(master)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 역사가 멈춰지진 않는다. 이 주인은 자신을 인정한 비굴한 상대방을 쳐다보니 이제는 자신의 노예라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주인은 이제 노예의 인정따위에는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에게 진정한 인정을 표시할 자신과 동등한 사람을 찾아 ‘인정투쟁’을 다시 시작한다. 헤겔에 따르면, 주인의 역사는 끝없는 ‘인정투쟁’의 역사에 불과하고, 반면 인정투쟁에서 패배한 노예들은 그 인정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들 노예들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시작되어 코제브를 거쳐 후쿠야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토리에서 한가지 지적은 공통적이다. 즉, 목숨을 걸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주인과 노예의 갈림길에서 평화애호와 자기보존 욕구에 굴복하면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¹²⁾

물론,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극단적인 요소가 있다. 우선, 인간이 ‘인정’에 목숨을 건다는 가정 자체가 의문스럽다. 루소는 인정 받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중세 기사 같은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루소는 흄스식의 거칠고 공격적인 인간 모습은 근대에 들어서 삐뚤어진 모습일 뿐이고 선천적인 본성에 충실한 ‘자연인’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영키는 것 자체를 싫어하며 낮을 가리며 서로 멀리

12) Alexandre Kojève,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9), pp. 7-9 &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pp. 143-152.

떨어져 지내려 한다는 것이다. 홀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남을 지배하거나 남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생활을 크게 간섭받지 않고 즐기면 인간은 그다지 사회생활에 큰 의미를 두진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황제와 관료들의 지배 아래 사생활의 즐거움, 예약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중화제국식의 정치사상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홉스식 ‘제국’이기도 하다.

5. 제국(帝國)과 가라타니 고진의 칸트 해석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제국과 제국주의를 정확히 구분한다. 근대 제국주의는 제국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팽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의 제국은 맹자 등이 얘기하는 ‘천하(天下)’에 가까운 것으로서, 폭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나라가 팽창해 천하를 아우르는 것이다. 물론 현실의 역사를 보면, 자발적 동의에 의한 ‘제국’은 이념형(ideal type)에 불과하며 폭력(무력)과 동의를 함께 사용하면서 한 나라가 팽창해가며 현실 제국을 형성해갔다. 맹자가 폭력(무력)에 의해 ‘제국만들기(평천하)’를 추구하는 것을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다)라면서 수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는데, 맹자의 이야기를 ‘제국만들기(또는 확대해서 제국유지에 까지)’에 있어서 자발적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뮌클러(Herfried Münkler)가 『제국: 평천하의 논리』에서 제국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는데, 제국 유지의 공권력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줄이는 것에 제국 유지의 성패가 달려 있다면 이 비용 줄이기의 성공 여부를 ‘아우구스투스의 문턱’(Augustan threshold)이라고 불렀다. 홉스가 구상한 리바이어던 국가처럼 경찰력 등의 공권력에만 의존해서는 거대한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데, 제국의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피지배자들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어낼 것인가이다. 제국 만들기도 그렇지만 제국 유지는 공권력의 이용을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술이 필요하다.¹³⁾

모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전쟁의 원천 자체를 봉쇄한다는 ‘제국의 꿈’은 인류에게 내재해있는 꿈일지도 모른다. 유럽도 끊임없이 국가간의 분열을 없애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 인류를 거대한 법적 질서 아래 두려고 했다. 국제정치는 거칠고 조악한 인간의 본성, 즉 자연이 적나라하게 민낯을 드러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없애려고 했다. 제국은 국제정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국내정치가 되는 통치체제다.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갈등은 국내적 갈등이 되는, 또는 고도의 ‘평화 기술’을 통해 갈등 에너지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을 꿈꾸는 통치체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국가적 차원, 공동체(민족 등)적 차원, 경제적 차원, 그리고 종교적 차원 등을 구분하면서 이러한 여러 차원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13) 헤어프리트 뮌클러, 『제국: 평천하의 논리』 (서울: 책세상, 2015), 154-184쪽.

세상을 이끈다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은 군사적으로 경쟁하는 국제정치를 말한다. 여기는 칼 슈미트적 현실정치(Realpolitik)가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다. 그리고, 경제적 차원은 칼 마르크스가 주로 다루는 영역으로서 현재는 세계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곳이다. 종교적 차원은 인간이 생래적으로 꿈꾸는 인류공동체의 염원이 작동하는 곳이다. 이러한 염원에 의해 인간은 갈등이나 교환이 아니라 땃가없는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한다.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염원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보편적인 제국이 보편적 종교를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염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린 가라타니 고진이 단지 종교적 차원만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는 국가적 차원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또, 그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언급한 ‘비사회적 사회성’(ungesellige Geselligkeit, unsociable sociability)를 언급하면서 인간적 본성(자연)이 가진 비사회성(갈등, 전쟁)이 궁극적으로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 언뜻 홉스나 칼 슈미트를 연상시키는 정치현실주의인데, 인간의 갈등/전쟁이 인간에게 정치적 질서를 만들기를 유도해낸다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칸트의 ‘비사회적 사회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로 비록 한계는 있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 탄생한 국제연맹, 제2차 세계대전 후 건립된 국제연합(UN)을 들고 있다. 그는 칸트가 전쟁(비사회성)을 부정만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세계공민적 견지에서 본 일반사의 구조』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한다.

‘자연의 계획’이라는 것은 각 국가로 하여금 국내적으로 완전하게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외적으로도 완전하게 되도록 국가조직을 꾸린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국가조직이야말로 자연이 인류에게 내재하는 일체의 자연적 소질(素質)을 남기지 않고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¹⁴⁾

자연의 계획에 따라 ‘비사회성(전쟁/갈등)’이 국가의 내부조직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대외조직의 정비를 유도하면서 세상은 좀 더 잘 작동하는 내정/외정 시스템을 갖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성(평화)’로 이어지게 된다. 전쟁과 평화를 이분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중국에서 고전적 형태의 중화제국을 처음 만든 것은 진(秦)이었는데, 오직 상앙(商鞅), 이사(李斯), 한비자(韓非子) 같은 법가(法家) 사상가들의 생각에 따라 국가 공권력에만 의존해 제국을 만들었기에 결국 윈클러가 이야기한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얼마 못 가 멸망했다. 진(秦)이 이론 통일천하를 접수해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한

14) 柄谷行人, 『世界共和国へ』(東京: 岩波書店, 2006), 223쪽. Kant,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51쪽. 본 발표문에서는 가라타니 고진의 해석을 중심으로 칸트 사상을 소개한다.

것은 그 다음에 오는 한(漢)이었다. 한 제국은 법가가 중시하는 공권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가(儒家)가 중시하는 예악(禮樂)이라는 소프트파워도 적절히 사용했고, 이로써 통치 비용을 줄이고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진한(秦漢)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사력의 사용, 즉 전쟁은 최소한 제국(즉, 영구평화의 현실적 방안)의 건설에는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데, 천하를 아우르는 (보편)제국의 건설이 결과적으로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지만, 분열된 국가들이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은 수많은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였다는 사실이다. 진한(秦漢)이라는 제국으로 가는 길에 춘추전국시대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다. 칸트의 ‘비사회적 사회성’이라는 표현대로 전쟁이 평화로 이어졌던 것이다.

6. 근대 전쟁의 양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가간의 전쟁은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변함없이 발생하게 되어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갈등 에너지를 줄이거나, 국제정치적 지혜와 국제법적 규범으로써 그 갈등을 관리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전쟁의 양태만은 계속해서 변한다. 전쟁사가(戰爭史家) 한스 델브뤽(Hans Delbrück)은 근대 전쟁의 특징으로서 소총 등 소화기(small arms)의 발전에 주목하고, 이러한 전투방식과 민주주의의 등장을 연결짓는다. 소총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 장전-재장전 속도가 느릴 때는 오와 열을 맞추고 속보(速步)로 전진해 최후에는 백병전으로 적을 무찌르는 훈련된 용병들이 전쟁을 주도했지만, 소총의 발달과 함께 장전-재장전 속도로 빨라지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속보-백병전 같은 전술은 유효하지 않고, 각 병사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엄폐를 하면서 각개전투를 해 나가면서 싸우는 전술이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떠올랐는데, 오와 열이 무너지고 전장이 탈(탈영)의 위험성이 높은 이러한 전투에서는 애국심을 가진 많은 숫자의 병사가 적은 수의 훈련된 용병에 우위를 가지게 된다. 시민병사가 전쟁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가방위에 기여하게 된 시민병사들은 정치적 목소리까지도 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용병과 달리 시민병사들은 애국심에 따라 참전하는데, 이 새로운 전투방식은 애국심을 필수요소로 삼는다. 뿔뿔이 흩어져 싸우기도 하고, 칠흑같은 야간에 적을 공격하고 추격하기도 하는 새로운 전투방식은 강제적 규율에만 복종할 뿐 전시에 호시탐탐 탈영을 노리는 용병들에게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용병은 오직 ‘오와 열’로 규율할 수 있을 뿐이었다.¹⁵⁾

근대는 소화기(소총)와 보병의 시대였다. 수많은 무기들이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보병을 이끌 수 있는 무기와 전투방식은 없다. 미국이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

15) Hans Delbrück, *History of the Art of War, IV: The Dawn of Modern Warfar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0) 참고

가니스탄전쟁에서 막강한 화력과 첨단 무기로 개별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지리한 적 보병과의 오랜 전쟁에서는 전력을 소모하고 결국 철수했다. 19세기 후반 이후 한 동안 기관총 등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제국주의 열강의 군대가 현대적 무기와 전투방식을 아직 알지 못했던 저개발국의 토착민 군대를 차례차례 격파하고 제국주의적 팽창에 성공했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토착민도 제국주의자들의 장기인 현대적 무기와 전술을 채택함에 따라 결국 제국주의 군대를 내쫓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때 항공기의 발전으로 보병(주로 징집병)이 아닌 엘리트 군인들의 부상이 예견되기도 했지만, 보병 없이 항공기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다.

금년(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여전히 보병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각광을 받게 된 무기는 대전차미사일 재블린(Javeline)과 대공미사일 스팅어(Stinger)인데, 이들 휴대용 미사일을 지닌 보병이 전차와 항공기에 맞설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줬다. 이번 전쟁이 어떻게 결말 짓게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만, 전쟁이 종료된 후 휴대용 미사일과 저격용 소총을 들고 러시아 군을 격퇴한 우크라이나의 시민병사들(보병)은 국가안보의 최대 기여자로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의 강력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정치적으로 합당한 지분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게 되었고, 러시아와의 갈등을 통해 국가내부의 단결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련이라는 제국에서 분리되어 나온 우크라이나는 누가 ‘우리’고 누가 ‘남’인지가 불분명한채로 남아 제대로된 국민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나라와의 대립이라는 ‘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존재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외국 정부와 대결하고 교류하는 일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직 누가 국가의 진정한 대표(정부)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외국과 갈등하고 교류하는 국제관계의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기능을 하는 조직이 정부가 된다.

뒤르케임과 전쟁의 사회학 : 국가주의 비판과 새로운 정치

정 원(협동조합 균형사회 플랫폼)

1. 전쟁 전야: 애국과 평화 사이에서

20세기 초반 프랑스 사회에서 호전적 국가주의의 확산은 애국주의의 깃발아래 구체화되었다. 1870년 패전이라는 민족적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과의 대결을 불사하는 집단적 염원은 정치적 판단을 좌우하였다. 극우 가톨릭 세력과 반-드레퓔스주의자들의 결집은 배타적인 인종주의와 반의회주의가 보여주듯이, 민족의 단결과 국민의 통합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보다 권위주의적이고 군국적인 정부를 향한 지지로 구현되었다. 개인의 권리가 자연권의 이념적 추상화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행하고 시장의 자유가 공동체의 권위와 비경제적 강제들을 해체하는 자유주의 개혁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민족이라는 근대적 구성물에 대한 집단열정이나 국가라는 폭력기구를 숭상하는 국수적인 민족주의는 점차 현실정치를 규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계몽주의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으로 완결되는 순간에 오히려 자유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해체되고 있었다. 엘리트들의 이념적 서클에서 발생하였지만 대중 운동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파시즘 이전의 프랑스 국수주의 운동은 공화정부의 사회개혁이 진전되는 것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성과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었다.¹⁶⁾ 물론 이는 프랑스 사회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다. 구성된 민족의 허구적인 과거를 숭상하는 역사적 반동세력은 유럽 대륙 전체에서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분노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입헌적 개혁체제를 향한 저항을 공개적으로 조직하였다. 반면에 공화주의적 시민들은

16) 파시즘이 유럽사회의 현실 정치에서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기 한 세대 이전에 인종주의와 국수주의와 결합한 군국적인 민족주의 담론과 정서는 프랑스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드레퓔스 사건’은 단지 이를 표면으로 끌어올려 사회세력으로 결집한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극우주의 운동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반동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일종의 청년운동이자 급진적인 자코뱅주의와의 결합이기도 하였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반-자유주의적 가톨릭운동과 반-의회주의적 자코뱅주의가 반-드레퓔스 운동으로 결합하고 프랑스 극우주의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Winock, 2003: 185-242).

무력하게도 단일체인 국민으로 호명되고 집단의 목적을 위한 신민으로 수동적으로 배치 받는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점차 민족국가라는 절대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적 타자나 외적 경쟁국에 대한 증오는 정당화되고 그 정치목표는 결국 지배 권력을 합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통치 질서의 정당화를 넘어 총체적 파국의 불씨를 키워가는 국가주의라는 집단심성의 지배에 어느 국가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¹⁷⁾

그러나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평화의 시대를 지켜나가려는 움직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투적 애국주의가 목소리를 높여갈수록 국제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활성화되었다. 평화체제를 지속하려는 국제주의에의 호소가 결국은 제국주의 국가들만의 정치적인 타협과 경제적인 호혜관계를 지속하려는 자본가들의 위선적인 시도에 불과했는지라도, 목전에 다가오는 전면적인 위기와 비교해본다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 이래 지속되어온 계몽의 유럽적 이상은 단지 잊혀진 철학적인 성찰을 되살리거나 추상적인 국제법의 선언에만 머물지 않았다. 인위적이거나 전근대적인 공동체의식과 단절하거나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근대화된 문명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코즈모폴리타니즘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추방된 이방인들의 외침이나 근대 국가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자들의 주변적인 연대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야만적인 전쟁의 폭력을 중단하고 국제적인 평화기구를 설립하려는 문명론적 비전에서 세계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비정치적인 조직체의 구성까지,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점차 다양한 시민들의 운동들로 전개되었다. 단지 소수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정치담론의 장에서 시작된 국제평화운동이 노동계급의 성장과 맞물려 새로운 전기를 만나게 된 것도 실제적 역량을 확장하였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가 중심이 된 코즈모폴리탄 시민권운동만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인터내셔널이 주도하는 계급적 평화운동은 통치체제를 겨냥한 급진적인 변혁운동으로 전환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배 권력에 의해 전쟁으로 동원되며 파괴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대중들의 분노를 사회혁명으로 전환하려는 계급운동의 대안은, 고조되는 전쟁의 분위기에 맞서기는 비현실적이었고 전쟁기계의 동원 앞에서는 무기력하기만 하였다. 뒤르케임의 단언처럼 “시간 밖에 살며, 이상 속에서 구체적 미래의 감각이 없는” 국제주의자들의 신념은 “어떻게 새로운 도덕을 형성할 수 있을 지를 설명”하지 못한 채(Durkheim, 1906-7: 188), 강렬한 집단심성으로 고양된 민족감정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표출되고 맹목적 흐름으로 분출하는 시대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있었다. 호전적인 국가주의가 성공적인 문화상품으로 청년세대에게

17) 자유주의 개혁체제의 허약함은 과거로의 반동과 미래로의 변혁을 동시에 열망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숭배가 고조되는 만큼 악화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위기는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전체주의의 도래를 유발하였다. 자유주의의 위기와 전체주의의 역사적 심연을 연결하는 1차 세계대전의 역사적이고 사상적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Gauchet, 2010: 19-62).

소구될 때, 평화에 관한 이성적인 호소나 계급적 선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되거나 냉소의 대상일 뿐이었다. 전쟁의 엘랑비탈을 찬양하는 프랑스 사회에서도 코즈모폴리타니즘은 이미 고립된 지식인들의 윤리적 선언이거나 반국가적 좌파들의 매국적 선동에 불과하였다.

뒤르케임은 다가오는 파국을 예감하듯 애국주의와 평화주의 세력 사이에서 한층 치열해지는 대립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애국과 평화의 문제는 프랑스의 외교정책과 유럽의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적 토론이나 정당들 간의 정책 대결을 벗어나 있었다. 모든 정치적 갈등을 양 진영으로 결집시키며 사회변화의 변곡점을 향해 급진전하고 있었다. 그는 근대성의 결과로서 민족과 계급의 분화와 그 갈등의 동시적인 확산을 과학적으로 성찰하면서도, 프랑스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긴급하게 경계하고 그 후과를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파국을 막으려다 암살당한 친구 조레스의 유언처럼 애국과 평화를 결합하는 길을 찾기 위해 공론장에서 분투하고 있었다.¹⁸⁾ 그는 사태의 현실성을 외면한 관념적 부정이나 윤리적 비난으로 도망가지 않았다. 전쟁으로 실현된다는 정신적인 고양이나 물질적인 이득이 얼마나 헛된 주장에 불과한지를 논파하는 것에도 머물지 않았다. 뒤르케임의 제자들 역시 민족주의와 코즈모폴리타니즘 논쟁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평화운동의 조직자나 대표자로 주동적으로 활동하였다.¹⁹⁾ 그러나 그는 애국주의자들이 맹신하는 순수한 국가주의의 구호만큼이나 코즈모폴리타니즘이 선언하는 추상적 평화주의의 담론 역시 거부하였다. 전쟁을 낙관적으로 이념화하는 극우적 민족주의자들이 기대하는 역사적 운명론만큼이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혁명으로의 전환 역시 동의하기 어려웠다. 근대민족국가의 역사적 결과가 무엇이든 정치를 향한 성찰은 광신적인 민족주의에 내재한 국가주의적 폭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평화주의가 표방하는 허울뿐인 이상이나 혁명에 대한 역사철학적 정당화도 단연코 극복되어야만 했다. 사회학자로서의 소명은 그를 과잉된 민족주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윤색된 집합표상들의 병리성이나 사후적인 결과론으로 정당화하는 집단심성의 정신적 분열을 사회적으로 치유하는 기획으로 이끌었다. 그는 전쟁이라는 정치적 파국을 감행하는 근대 민족국가라는 조직화된 정치사회를 넘어 “유럽 혹은 문명 세계를 형성”하거나 “훨씬 거대한 또 다른 조국을 창조”(Durkheim, 1908: 294)하는 휴머니즘에 기반 한 평화적 애국주의를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의 지배적 법칙을 뒤따르는 전쟁의 폭력이 아니라 평화롭게”(같은 글: 297) 열

18) 뒤르케임은 1905년과 1906년, “Union pour la vérité”에서 주최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애국주의와 사회계급의 국제주의’ 공개 대담에 연속해서 참여하였고, 극우민족주의자들에게 공격받았던 1908년의 “Société française de philosophie” 대회에 참석하여 애국주의와 평화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평화적 애국주의의 길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urkheim, 1905, 1906ㄱ. 1906ㄴ, 1908).

19) 모스와 부글레를 비롯한 뒤르케미안들은 사회주의적 평화운동을 직접 조직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모스의 다음 글, 특히 ‘3장. 애국주의자와 국제주의자’ 참조. (Muss, 1997)

어가는 새로운 정치를 전쟁 전야에 준비하고 있었다.

2. 전쟁과 사회학자의 책무

평화를 위한 모든 투쟁과는 별개로 제국주의 패권 경쟁이 만들어내는 국제정치의 위기는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그러나 사후에는 충분히 인과적으로 설명되었던 경로들을 따라 증폭되어갔다.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국제정치의 위기들을 뒤따르며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전쟁이 가져다줄 민족의 영광과 개인의 구원을 소리 높여 외쳐대는 집단적 정서는 여론의 공론장을 압도하였다. 낡고 답답한 평화질서를 해체하고 젊고 활력적인 민족국가가 탄생한다는 신화들이나 타락한 정신이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목시적 서사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맹목적으로 숭배되거나 사회적 수준에서 반론 없이 유행되기에 이르렀다. 국제무역의 성장과 경제발전의 이익은 물리적인 충돌을 억제한다는 사뭇 합리적인 논증들이나, 또는 군사 외교적 균형 속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지적인 대립은 몰라도 전면적인 대결은 일어날 수 없다는 이성적인 확신은 실제적 사태의 전개 앞에서는 단지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였다. 마침내 자연스럽게 고조되는 파국의 분위기 속에서 전쟁으로의 돌입은 유럽 대륙 어디서나 집단적인 열광을 불러일으켰다.²⁰⁾ 하지만 전쟁은 국제정치의 상황이 야기하는 역사 구조적 인과들의 필연적 산물이 아니었다. 국가적 위신을 잃지 않으려는 지배계급의 강박이나 통치의 정당성을 훼손하리라는 두려움에 내몰린 나머지 무분별하게 근시안적인 치킨게임에 몰두했던 주요 행위자들의 결정적인 선택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국가주의의 열광이나 군국주의의 압력 속에서, 정치적 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엘리트들 내부에서의 경쟁에 휘둘리며 반대자들을 굴복시키고 지지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서라도 사태의 임계점을 향해 달려갔다. 한때는 국제평화를 부르짖던 지식인들도 뒤늦지 않게 전쟁의 대열에 합류하여, 스스로 주어졌다고 자부하던 민족적 소명을 감당하거나 소위 ‘시대정신’의 전위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이 지키거나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전쟁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무너지고 ‘어제의 세계’는 역사 속으로 저물고 있다고는 감히 짐작조차 못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은 근대성이 집적한 물리력과 조직력을 총동원한 최초의 총체전이었지만, 세계 여론 앞에서 참전국들이 민족적 사명의 정당성을 경쟁하고 전쟁의 책임을 심판하려는 사상 전쟁이기도 하였다.²¹⁾ 제국주의 패권을 쟁취한다는 실질

20) 세계대전 전야에 광범위하게 전개된 애국주의의 선전과 전쟁에 대한 찬양은 종전 이후에도 전사자 숭배나 국가적 기념식으로 계속되었다. 야만에 대한 문명의 승리라는 전쟁 문화가 집단 정서를 통해 동원되거나 기억 속에서 구조화되는 데 있어 1차 대전은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Ypersele, 2017).

21) 1915년 4월 18일 “New York Tribune”에 게재된 독일 역사학자의 전쟁책임론에 대한 뒤르케임의 비판은 미국을 비롯한 당시의 중립국 여론을 향한 선전의 일환이었다. 이는 그의

적인 목적을 은폐하거나 합리화하려는 것만이 아니었다. 역사의 판결과 문명의 광휘를 승자의 권리로 차지하려는 이념적 쟁투가 전면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었다. 전쟁은 근대 정치의 폭력적인 일탈이 낳은 병리적 사건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타락을 구원하려는 국가에게 부여된 숙명이었음을 강변하는 임무에 사회학자들 역시 자발적으로 복무하였다. 어쩌면 전쟁의 인과성을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 의의를 이념적으로 채워넣고 애국자로 살아남아야했던 것은 모두가 야만적이었던 시절에 던져졌던 지식인들이 감당해야하는 숙명이었을 지도 모르겠다.²²⁾

그러나 뒤르케임은 조금은 다른 길을 걷고자 분투하고 있었다. 물론 그 역시 사상전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그의 역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베버처럼 직접적으로 군복을 입고 ‘영광의 장에서 죽음’을 찬양하지 않았더라도 그 나름의 방법으로 할당된 임무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오히려 전쟁을 독려하는 어용지식인이나 기능적인 전문가로서 선전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유폐되어 자신만의 세상으로 추방된 학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의 신념은 애국적 사명을 휘두르며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정당화하기에는 지나치게 이성적이었고, 현실을 외면하고 사태를 낙관하기에는 그의 사유는 충분하게 비판적이었다. 그는 외아들을 포함하여 “정의에 목마른” 세대, “탄생부터 부자와 빈자로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부담함에 맞서 “시민적 신념”(Durkheim, 1917c: 432)으로 무장한 프랑스 사회학의 청년세대가 말 그대로 전쟁에서 상실되는 개인적 비극과 소위 뒤르케임 학파의 몰락을 반성적으로 응시하고 있었다.²³⁾ 집단적인 적에 대한 증오와 전쟁을 향한 집합적인 열정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근대주권국가 사이의 쟁투를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하였다. 장기간의 사태가 가져온 희생의 이유를 감당하거나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청년 사회학자들이 전장에서 사라져간 비극을 성찰적으로 해명하는 일은 사회학자로서의 책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납득해야만 하는 실존적 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외교문서를 분석하거나, 세계대전의 실체를 추적하여 총력전의 사회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²⁴⁾ 전쟁으로 돌입하는 과정과

‘전쟁팸플릿’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Durkheim, 1915c/1997).

22) 세계 대전에서의 고전 사회학자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다음, 특히 ‘4장’을 참조. (Joas & Knobl, 2013; 116-155).

23) 뒤르케임이 고등사범의 연보에서 외아들 앙드레를 위해 작성한 회상은 세계 대전에서 사라져간 프랑스 사회학의 청년세대에 대한 조사이기도 할 것이다. 전쟁이 가져온 뒤르케임 사회학파의 소멸은 후속 세대에게 그가 남겨놓은 지적 유산을 계승하거나 전쟁의 후과와 그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사회학적 과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전간기 그리고 30년대의 역사적 소용돌이 앞에서 프랑스 사회학의 무능력과 몰락은 어찌 보면 세계대전이 낳은 부수적 피해였다.

24) 뒤르케임은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이 세르비아에게 전달된 1914년 7월 23일부터 독일의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 8월 3일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공식 외교문서와 비공식 비망록을 분석하여 전쟁의 책임을 규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urk

그 책임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는 완결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시간 내내 국가주의가 휘두르는 집단심성의 허상들을 벗겨버리고자 그 왜곡된 실체를 대상으로 성찰하고 있었다. 끝내 파편화된 구상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전쟁의 사회학은 전쟁의 상처가 남겨놓은 사회적 상처와 개인적 고통 앞에서 계속해서 변주되고 심화되어갔다. 그의 기획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현실의 급격한 변환을 따라가기에는 미흡하였고 급격하게 중단되었지만, 전쟁의 인과적 설명이나 근대 정치철학의 사회학적 해석을 넘어 근대 정치일반과 국가에 대한 사유 전체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업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3. 근대국가와 집단심성

3.1. 독일 국가주의와 예증적 타당성

뒤르케임은 1915년 『모두 위의 독일. 독일심성과 전쟁(L'Allemagne au-dessus de tout. la mentalité allemande et la guerre)』(이하 『독일』)이라는 짧은 팸플릿을 출간하였다.²⁵⁾ 대표적인 프랑스 지성들이 정부의 요청이나 애국적 책임으로 출간했던 일련의 전쟁 선전물(《Etudes et documents sur la guerre》)의 일환으로 급박하게 제작되어 출간됨과 동시에 영역본으로 전 세계에 배부되었지만, 진지하게 평가되기보다는 쉽게 잊혀졌던 저작이었다. 뒤르케임의 해설자들에게도 전쟁의 와중에서 벌어진 전기적 일화로 간주되거나, 전후 편집된 선집에 포함되어 재발간되지 못한 채 서지목록에만 등재되어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뒤르케임의 단편은 프랑스 국민의 애국정서를 고양하거나 전쟁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다른 지식인들의 작업과는 명백하게 차별적이었다. 전쟁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와 과정을 인과적 설명으로 해설하거나 전쟁의 귀책요인을 독일에 할당했던 그의 다른 전쟁 저술과도 구별되었다. 모스의 통찰처럼 『독일』은 외면되기에는 문제적 텍스트였다. “뒤르케임의 국가에 대한 사유는 진화 중”이었고, “그의 국가론은 독일 테제와 트라이치케 테제 연구의 영향 속에서 실제로 수정”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Mauss, 1925/1969: 476). 정치사회로서 국가에 대한 성찰과 근대정

eim & Denis, 1915ㄱ).

나아가 그는 총력전으로의 세계 대전의 성격과 승전을 위한 도덕적 각성에서, 동맹국의 군사력 약화와 최근 전투에서 입증된 프랑스 군사력의 강화의 대조 그리고 전쟁 산업의 발전과 재정적 확충에 이르는 실증적인 분석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국민에게 특히 교육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다. Lavissee가 책임을 맡은 이 소책자와 뒤르케임이 서술한 네 편의 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urkheim 외, 1916).

25) 『모두 위의 독일(L'Allemagne au-dessus de tout)』이라는 제목 자체부터 예시적이었다. 이미 뒤르케임은 “프랑스 문화에 결합된 특별한 가치에 종속”되어 “모두 위의 프랑스(la France au-dessus tout)”를 강요하는 “애국주의” 대신 “추상적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Durkheim, 1908/1970: 300).

치 일반에 대한 사회학적 전환이 시간의 강박 속에서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사건의 심층에서 독일이라는 타자의 집단심성을 역사화하고, 전쟁의 정상성과 병리성을 근대정치이성의 근원에서 추적하려는 마지막 기획이 행간에서 함축적으로 제안되고 있었다.

그러나 뒤르케임은 『독일』에서 독일의 정치군사적 시스템에 관하여 구조적인 설명을 하거나 정치권력을 휘두르며 전쟁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들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근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정치 사상가로서 이미 사라진 인물, 트라이치케(Treitschke)라는 한 인격에 집중하였다. 정치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자유주의자에서 보수주의자로 끊임없이 변신하는 트라이치케의 편력을 꼬집어내어, 독일 자유주의 사상과 그 민족주의 운동의 부박함을 논증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비스마르크와의 친분을 활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했던 것이 독일 보수주의의 심연에 자리 잡은 권력 지향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트라이치케는 독일의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에게 단지 지적 스승이나 참여적 지식인의 사표가 아닌 문제적 인물이자 경세가였다. 분열된 연방질서를 극복하고 강력한 민족통일국가를 형성하려는 근대 독일인들의 오랜 집단적 열망을 대변하는 사상가이자, 민족주의의 특수성이나 지정학적인 현실주의에 맞서 청년세대에게 애국주의의 보편성을 호소하고 범게르만적 이상주의를 역설하는 독일 국가주의의 설계자였다. 따라서 뒤르케임은 “특정 개인이 아닌 하나의 집합체”로서 “시대의 삶에 더할 나위 없이 혼합되어 집단적 환경의 심성을 표명”하는 트라이치케가 어떻게 독일정치의 이념적 내용과 제도적 실체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Durkheim, 1915-2015: 58). 트라이치케로 대변되는 독일 국가주의와 그 정치적인 영향들이 현실정치를 지배하고 전쟁국가의 집단심성을 주조하는 경로를 따라가며, 동시에 정상적인 근대국가에 잠재되어 있다가 세계대전이라는 병리적 파국으로 현실화되는 사회정치적인 맥락을 추적하고 있었다. 근대 정치의 역사적 과정을 복기하는 그에게 전쟁은 예외적인 사태이기보다는 독일국가라는 근대적인 정치적 결합체의 자연스러운 전개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독일』은 트라이치케라는 근대국가의 이념적 표상과 민족적 집단심성의 실행에 대한 현상적인 분석만이 아니었다. 트라이치케와 그 후예들이 사상과 정치를 통합하며 역사적 가상으로 민족정신을 구축하거나 국가주권을 권위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뒤르케임은 경험적 정치과학의 도식으로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합리화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논리로 정치적 쟁투를 환원하려는 시도들과의 단절을 요청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획은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에 닥쳐올 시대적 혼란과 더 큰 절망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새로운 정치는 오직 국제법이나 도덕 그리고 시민사회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려는 국가주의와의 철저한 대결 속에서만 출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끝까지 그는 트라이치케라는 개별자에 대한 예증적 타당성을 통해 근대 정치사상과 현실정치를 전복하고, 전쟁의 집단심성이 아닌 ‘확장된 심성(enlarged mentality)’을

가진 인격들 모두에게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3.2. 사회와 국가

국제법과 국가

뒤르케임은 『독일』에서 트라이치케의 정치이념이 국제법을 국가 주권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그의 시선에서는 통일독일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과정 안으로 수미일관하게 결합되었던 트라이치케의 사상이야말로 주권국가 독일과 국제법의 관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었다. 하지만 트라이치케는 국제법의 암묵적 규정이나 명시적 협약을 거부하는 국가주권의 실행을 합법화하기 위한 이념적 근거에만 그치지 않았다. 고착된 국제 질서를 폭력적으로 파열시킨 후에만 독일 통일이 가능했고 제국을 향한 발전 또한 열강과의 물리적 대결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하다는 민족적 집단정서를 트라이치케는 철저히 대변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이성과 그 실행은 제한이나 한계 없이 정치적 결정을 행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부여받았음을 강변하는 독일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역사의식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트라이치케와 그 후예들은 시종일관 국가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집행하듯이, 대외적으로도 국제적 협약이나 국제적 법률에 관한 모든 행위의 주권자임을 자의적으로 단정하였다. 그들에게 주권국가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구성되고 “국가의 본질 자체는 그 위의 어떠한 힘도 인정하지 않”기에(같은 글: 62), 법적 체제에 근거하는 입헌민주주의체제라 할 지라도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합법적 절차나 대내외적 법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결단하였다. “개별자들 간의 계약에는 도덕적 역량이 계약자의 의지를 지배”한다면 “국제 계약에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거나 “국가의 의지 위에 존재할 수 없”기에(같은 글: 65), 이해관계를 조율하던 국제적인 규범이나 역사적으로 지켜온 암묵적인 국제적 규약은 더 이상 주권국가 독일의 결단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천명하였다.²⁶⁾

그러므로 뒤르케임은 트라이치케의 정치사상에서 통일독일의 역사적 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민족국가의 합법적 토대를 마련한 단지 사상적 원천에만 주목하지 않았다. 트라이치케의 논리는 모든 국제법의 경계 너머로 독일의 절대적인 권한을 투사하려는 전략적 논리이자 패권을 쟁취하려는 국가비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었다.

26) 통일 독일의 헌법학자들은 헤겔의 국가철학을 법적 체계로 수용하여 1차 대전 이전에 이미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실정법으로 합법화하였다.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는 30년대의 헌법 논쟁 이전에 이미 절대국가의 입헌적 정당화가 트라이치케의 정치사상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베버의 전쟁 참여 역시 외적인 강요나 상황적 요청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집단심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행이었고, 독일 국가의 주권을 강조하고 광역권질서를 강변하는 슈미트의 정치신학 역시 독일 국가주의의 자연스러운 귀결점이었다.

그는 독일국가는 자신들의 실정법체제 하에서 어떤 국제법도 강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상을 헌법적 원칙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그 표상으로서 트라이치케는 세대를 건너 계속해서 호명되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트라이치케들은 국가적 운명을 방해하는 다른 주권들과의 문제는 오직 실질적인 강제력, 지금 도래한 전쟁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현실정치 속에서 증명하려는 반동적인 실행 자체였다. 그들에게 “전쟁은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도록 이끄는 정치적 이상주의를 함축”하는 것인 반면에, “평화란 물질주의의 지배”에 불과하고 “영구평화의 이상은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스캔들”일 뿐이었다(같은 책: 69). 뒤르케임의 해안처럼 주권의 절대성을 강변하는 정치사상의 결론은 국가주의를 이상화하고 거침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탈도덕적 정치의 합리화로 귀결될 뿐이었다.

도덕과 국가

뒤르케임에게 전쟁이라는 사회적 사실을 정초한 사상적 기원과 집단심성에 관한 분석은 도덕과 정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트라이치케가 덕의 원리에 종속되었던 정치의 자율성을 정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인류의 위대한 이해에 귀를 막”고 “도덕 밖에 그리고 도덕 위에 자리 잡아”야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에 구체적으로 맞서야만했다(같은 글: 85). 트라이치케처럼 국가가 수행하는 정치행위는 도덕적 판단과 상관없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서슴없이 단언하는 것은 거부되어야했다(같은 글: 87). 그에게 정치권력에 도덕을 종속시키는 정책적 실행을 주권국가의 정언명령으로까지 위치지우거나 이를 평가하는 규범적 기준을 상대화하는 것은 오직 정치적 결과만을 합리화할 뿐이었다. 주권이 수행하는 정치적 실천은 상황 속에 규정된 예외적인 것이 아닌 초월적 결단만으로 완결되기에,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는 야망을 가진”다면 “일반인이 사소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설정된 “도덕”이라는 “협소한 격자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역설하는 주장은 위험하고 폭력적이었다(같은 글: 89).²⁷⁾

그러므로 뒤르케임은 국가주의적 정치이성이 자연법의 제한이나 계약론의 가정에서 벗어나 도덕적 선을 오롯이 결정한다고 강변하는 트라이치케의 정치사상, 정치의 윤리적 토대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거나 실제적으로 부정하는 사상적 논리를 비판하는 과업을 중

27) 트라이치케의 도덕과 정치를 분리하는 국가주의적 정치과학의 원리는 베버의 정치사회학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말년 베버의 정치적 텍스트에서 표출되는 정치와 윤리의 이중성과 이분법은 전통적인 독일 보수 정치사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사회학의 개념으로 보다 명증하게 논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베버의 정치사회학은 현재의 현실정치상황과 정치적 논쟁에서 일면적으로 긍정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일 정치사상사의 자장 안에서 분석되고 그 사상적 토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베버의 정치사회학에 대한 비판적 독해는 정원(2015)를 참조.

단할 수 없었다. 트라이치케적 이념을 향한 부정은 국제법을 훼손하는 주권국가의 자의적 행위나 그 귀결의 인과론을 일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전쟁의 사회학을 한정되지 않았다. 전쟁을 배태하는 독일 집단심성에 대한 해설은 독일의 국가주의를 넘어 근대가 자부하는 현실정치의 실행논리와 그 과학적 준거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뒤르케임은 도덕과 내재적으로 통합된 ‘정치적인 것’의 과학을 수동적으로 승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었다. 국가이성이 감당해야하는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 근대 정치에 내재하는 도덕적 악을 합리화하는 정치과학에 대한 급진적 전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정치의 실현은 사회적 인격의 자유나 휴머니티의 도덕적 보편성을 배제하는 현실정치의 지양에 달려있음을 절감하며,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트라이치케의 정치이론과 그 근대적인 정치과학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시민사회와 국가

뒤르케임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트라이치케의 논의를 다루면서, 『사회학 강의』에서 일찍이 제시했던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유기적인 조화가 국가주의의 사유 틀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연대의 공화국을 구성했던 제도들이 국가주의의 헌법적 장치나 법률 조항에서 일방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사회의 생명원리”이자(같은 글: 96) 법과 도덕 그리고 사회 전체를 규율하는 초월적인 위치로 격상되는 것을 문제화하고 있었다. 독일의 국가주의에서 칸트 정치철학의 핵심인 공공영역으로써 시민사회의 발견이나 ‘정치적인 것’의 공통감각을 소통하는 ‘사교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그들은 절대적인 주권국가의 규율 속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사적 영역의 갈등은 정치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연역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원자화된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한 시민사회는 공적인 과제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며 군중들의 비합리적인 주장들이 정치적 판단으로 용인될 수 없기에, 오히려 국가에 대한 “복종이 시민의 첫 번째 의무”로 선언되기 때문이었다(같은 글: 98). 트라이치케에게는 오직 사적인 것을 순수하게 정화하며 공적인 정치를 실현하는 국가주권만이 정치이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주체이자 그 실체이었다.

그러나 뒤르케임은 트라이치케의 국가주의가 전제하는 시민사회 비판을 전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사회와 국가의 유기체적 통합이나 상보적인 진화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사회연대에 기반 한 시민사회나 조합주의적인 사회국가를 당위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주의자들의 정치과학이나 그 실제적 정치행위가 낳은 전쟁이라는 파국적 실체를 우회할 수 없음은 분명하였다. 이제 그는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국가이론을 독일이 처한 현실정치의 상황에 입각하여 논박하고 있는 트라이치케의 정치사상을 추상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머물기보다는, 전쟁 이후에 전개될 변화를 이념적으로나마 선취

하고자 하였다. 트라이치케라는 전형적 인물에 대한 인상적 비난이나 독일 국가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니라, 근대 정치의 근본으로 돌아가 자유주의와 국가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현실정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독일』은 근대 정치를 변혁하는 사회적 기획의 시작점이자 ‘내일의 정치’를 실천하는 매뉴얼이었다.²⁸⁾

3.3. 근대정치와 근대국가

근대정치는 근대성의 변화가 낳은 특이한 역사적 접합물이었고 근대국가는 위기 시대에 맞서는 정치적 대안이었다. 그러나 자연법을 통한 규율에 맞서 권력을 향한 정념들이 계속적인 쟁투로 분출하거나, 규범에 의한 훈육이 이기적인 개인들이 자행하는 탐욕적 행위들을 제어하지 못한 채 동요될 때 자유주의적 통치체제는 해체되고 있었다. 정치적 혼란에 맞서는 세속적인 근대정치사상은 자유주의적 정치지배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주권을 초월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다른 국가에게 자신의 의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찾고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며 도덕적인 선”이라고 강변하는 이념이 사회전체로 내재화될 때(같은 글: 108), 세계대전은 단지 우발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만들어낸 결과로만 상정되기에는 불충분할 뿐이었다. 아니 “전쟁을 변호”하며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사상들의 악순환이야말로 근대정치이성에 의해 은폐되었던 파국적 계기들을 전면적 위기로 현실화하는 원동력이었다(같은 글: 115). 따라서 뒤르케임에게도 트라이치케는 이미 사라진 과거의 유물이 아닌 계속 살아남아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독일이라는 집단심성의 인격체였다. 국가권력이 ‘사회적인 것’을 지배하며 실정적인 정치로 변환되는 사건들의 전개와 그 역사적인 함의들을 반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복해서 소환되는 트라이치케는 근본적으로 극복되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뒤르케임은 독일이라는 민족국가 역시 근대 정치이성의 병리적 사생아가 아닌 근대국가의 전형적인 모범이자 근대 정치의 적나라한 표상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시민사회의 도덕적 분열과 정치적 한계를 초월하는 국가에 관한 이념화를 지배하는 “헤겔의 사회이론이라는 신화적인 해결”에 대한 비판은 마지막 기획에서도 계속되어야만 했다(Durkheim, 1900?/2017: 146).²⁹⁾ 따라서 독일 국가주의와 민족정신의 결합을 구현

28) 전쟁과 위기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것’은 민주주의의 급진화와 국가의 실질적인 사회화를 공통적으로 소구하였다. 듀이와 미드 그리고 폴라니의 사회주의적 비전이 뒤르케임의 새로운 정치가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전망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29) 헤겔의 사회정치철학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적 논의를 부정하거나 오히려 진보적인 성격을 부각하려는 일군의 노력 속에서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헤겔사상의 복잡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해준 점이 있다할지라도, 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긍정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이러한 해설들에서 19세기 내내 진행되었던 헤겔적 국가주의의 영향력과 실상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균형 있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트라이치케 이래의 독일 정치사상

하는 정치사상과의 논쟁이나 그 정치 행위들이 역사적으로 구조화하는 경로들을 추적하는 것은 한갓 시론에서 멈출 수 없었다. 새로운 정치를 향한 사회적 기획은 국제법의 질서와 주권국가의 관계, 도덕적 가치와 정치권력의 통치체제 사이에서 변천되는 갈등과 통합 그리고 주권의 자율성과 시민적 자유를 실현하는 공통성의 장에 관한 계속적인 질문들로 채워가야 했다. 현실정치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정치 행위들에서 적절한 해답을 실험하고 총체적인 대안을 구성해나가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전쟁을 정치적 수행으로 합법화하는 근대정치의 실체를 한 인격이나 한 개별 국가로 한정하기 보다는 정치일반의 급진적인 전환 속에서 밝혀내고 있었다. 결국 『독일』은 판단 없이 전제되는 현실 정치의 이념을 부정하고 저항 없이 계승된 낡은 국가장치들을 폐기하는 집합적 주체들의 수행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정의와 평등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해주는 사회국가를 준비하는 ‘내일의 정치’는 그 실천적 전략일 것이다.³⁰⁾

4. ‘내일의 정치’와 뒤르케임의 유산

뒤르케임은 독일 국가주의를 구현하는 정치사상과의 논쟁이나 전쟁으로 전화하는 집단심성들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사회적 기획을 완결할 수 없었다. 정치를 재구성하는 이념적 혁신과 정치사회의 재조직은 고전 정치철학이 이상화하는 덕의 정치를 근대화하거나 중세 정치철학이 보편화하는 정치신학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었다. 또한 정치현상을 경험과학으로 정립하고 사법적 절차나 행정적 기구로 환원하거나 이미 파산한 자유주의 질서 위에 시장모델의 일반화를 요청하는 것도 혼란을 가중하는 것에 불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그는 이미 붕괴되어버린 현실의 정치를 회고하기보다는 전쟁 이후에 펼쳐지는 ‘내일의 정치’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전면적 파국이 의도하지 않게 부여한 집단적 각성의 기회들을 외면하지 않고 시효가 다한 근대정치의 이상을 현실화하며 어제의 정치에 맞서고 있었다. 비록 자의적인 단정이나 주관적인 비평에 불과할지라도, 파괴된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야할 삶들이 과거의 통치체제에 긴박된 신민으로 종속되지 않고 새로운 정치의 주권자로 변형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역량을 실현

사에서 그리고 파시즘의 출현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에서 헤겔의 사상적 위상과 정치적 역할은 동시대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헤겔 사회정치사상에 대한 보수적 해석을 내재적으로 비판하고 그의 진보성을 재해석하려는 호네프를 비롯한 해설들은 오히려 당대의 수용과정이나 비평들의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헤겔의 시민사회론과 뒤르케임의 직업집단과 그 조합주의적 사회국가론을 연결하려는 호네프의 논의는 헤겔의 국가주의를 지나치게 진보적으로 평가하거나 뒤르케임의 정치사회학적 지평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호네프의 뒤르케임 해설은 비판적으로 독해될 필요가 있다.

30) ‘내일의 정치’는 새로운 정치의 “이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결정적 형상을 목적하거나 실현“하는 ”사회적 환경“을 산출하는 비전에서만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Karsenti, 2017: 37),

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생애 마지막 글인 “내일의 정치”³¹⁾에서 전쟁을 합리화하는 신학적 혹은 역사철학적 정당화를 반복하거나 상처를 치유하자는 개인적 윤리나 관념적 이상에 호소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는 단편적인 구상에 불과했을 지라도 새로운 정치가 수행할 사회적 지평을 현실정치의 장에서 여실히 입증하고자 하였다.

뒤르케임은 프랑스 사회가 “위험도 영광도 없이 열악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으로 야망을 충족하는” 것에서 벗어나거나 “스스로 사랑하는 반수면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위대함”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쟁이 폭로하고 돌이킬 수 없이 확장시킨 프랑스 사회의 근본적인 균열을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그 현실성을 채워가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힘을 집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우선하여 그 경제적 힘들을 조직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했다(Durkheim, 1917-: 9).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 목표나 사회적 이해를 조준하는 하나의 사실”로서 “사회적으로 조직화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단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같은 글: 10). 전쟁이 증명하였듯이 근대사회를 산업자본주의체제로 구성하고 자유주의적 통치제도를 수립하였던 역사적인 과정은 이미 시효를 다했다. “경제적 삶의 조직화에 반대”하거나, “산업 질서 속에 내재한 국가와 개인의 낡은 적대”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에 대한 이념적 비판을 넘어서서 경제의 영역을 포괄하여 사회 전체로 재구조화하는 사회적인 경제 질서가 새롭게 출현하여야만 했다. 경제의 사회화는 “전쟁의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산물”이 아닌 “역사에 의해 제기되고 전쟁으로 성숙한” 사회적 성과이기 때문이었다(같은 글: 11). 이제 그의 시선 앞에서 실질적인 자유를 사회경제적 체제 속에서 실현하려는 ‘사회국가’는 이미 파국이 남긴 사태를 새로운 ‘정치’의 기회로 전복하며 창발적으로 탄생하고 있었다.³²⁾

그러므로 뒤르케임에게 전쟁의 사회학은 근대정치 일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유주의적 원리를 최적의 실체로 합리화하는 이념적인 정당화를 직접 겨냥하고 있었다. 동시에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가치체계와 제도장치나 국가주의적 이상을 완결하는 체계들이 전쟁으로 붕괴하는 과정을 추적하며 새로운 정치를 향한 실제적 구성으로 진전

31) 뒤르케임은 1917년 4월 17일 “La Dépêche de Toulous”의 ‘La Politique de Demain’이라는 연작 기고문에서 ‘생산과 민족적 번영을 위해 경제 활동을 조직화’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게재하였다. 이것이 출간된 마지막 글이었다.

32) 2차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프랑스 사회복지체제의 성립과 사회국가로의 전환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복지개혁이나 영국의 베비지 개혁과는 다른 역사에서 시작되었다. 연대주의의 전통과 뒤르케임 사회학의 영향은 그 중요한 전기였고, 2차 대전 이후 전개되는 프랑스 복지체제, ‘사회국가’의 현실화 과정은 다양한 차원에서 뒤르케임의 자장 안에서 진행되었음은 주목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뒤르케임의 ‘내일의 정치’는 “반동적 보수주의와 울트라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화”와 “국가의 민주화”를 현실화하고, “사회에 대한 실증적 지식 생산”의 근거로서 “사회학”의 책무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Lemieux, 2017: 147-50).

되고 있었다. 그에게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정치현실은 자유주의 정치질서를 불변의 가치로 이념화하는 근대정치이성과 그 통치체제가 산출하는 과정이었고 전쟁은 그 필연적 결과물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근대 정치의 이중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사태의 급변을 따라가지 못한 채, 조직화된 사회로서 국가의 실체를 탐구하거나 그 권력체계가 만들어내는 실체적 형상과 역사적 전개를 설명하는 것은 단지 부차적일 뿐이었다. 전쟁의 사회학은 전쟁 이후의 사회적 삶을 형성할 정치의 실질적인 혁신을 위해서라도 국가주의 정치사상과 그 실제적 힘들과의 대결을 중단할 수 없었다. 그의 오랜 열망, “정의의 절정”으로서 “인류애라는 감정의 강도”는 마침내 “지나치거나 일시적인 의무가 아니라 완전한 책임이 되고, 제도들의 탄생”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Durkheim, 1900?/2017: 356-7).³³⁾

결국 뒤르케임은 마지막까지 한 지식인의 임의적인 소망이나 일시적인 책무가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시민사회가 추구해야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미 기능이 정지된 국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기획은 주권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을 조율하는 유럽평화체제의 수립과는 단절될 수 없었다. 아직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했는지라도 사회국가들의 출현으로서 유럽 전체가 서로 연대하는 내일, 평화의 질서로 유럽연합이 도래하는 거대한 희망을 열어가고 있었다. 시장모델의 이념적 허상을 깨트리며 주권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사회적으로 변혁하는 길은, 개별적인 민족국가의 국경선을 가로질러 유럽적인 단위에서 안전보장을 구축하고 평화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적실하게 완결되어야만 했다. 그는 사회국가를 향한 사회경제질서의 구성과 국제평화체제의 복원이라는 이중적 목표를 동시에 해결한 방도를 찾으며 개인적 비극과 사회적 운명을 건너가기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전쟁의 거대한 물결은 뒤르케임이라는 한 실존적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삼켜버렸고 그에게는 이를 성취할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 뒤르케임 이후의 뒤르케임 사회학과 역시 스승의 유산을 지켜나가기느라 냉僻적으로 균열되어 실제적으로 사라져갔다. ‘사회적인 것’의 과학이 전간기 동안 계속되는 사회위기를 외면하고 전체주의의 폭력 앞에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느 제도 학문처럼 강단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만족했던 것에서 보여주듯이, 그의 기획은 사회학 교과서 안에 잔존되거나 사회학 정전 속으로 왜곡되어 삽입되는 것에 그쳤다. 그가 실행한 국가주의 비판과 새로운 정치를 향한 도전은 결정적인 반향을 남겨놓지 못한 듯이 주변적인 해설로만 평가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세대 후 사회개혁이 후퇴하고 평화의 현실성이 무화되는 순간, 또 다른 파국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 때 한 세대 전 그의 기획은 또 다시 미래의 희망으로 되돌아왔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수용되어온 역사적 계보만이 그가 남긴 유산의 전부였

33) 뒤르케임의 정치사회학을 정치사회로서의 국가에서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국가, 그리고 코즈모폴리탄 정치의 지평에서 유럽적 사회국가연합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적하고 있는 다음을 참조. (Callegaro, 2017: 특히 215-20).

을까?

참고문헌

- 정원, “베버의 정치사회학과 현실 정치” 한국사회이론학회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엮음, 『다시 읽는 막스 베버』 (서울: 문예출판사, 2015).
- Callegaro, F., “L’Etat en Pensée. Emile Durkheim et le gouvernement de la sociologie”, Karsenti, B. & Linhardt, D.(sous la dir.), Etat et société politique (Paris: EHESS, 2018).
- Durkeim, E.(1900?), Leçon de sociologie (Paris: PUF, 2017).
- Durkeim, E.(1905), “Débat sur le nationalisme et le patriotisme” V. Karady(엮음), Textes vol. 3 (Paris: Minuit, 1975).
- Durkeim, E.(1906ㄱ), “Débat sur le patriotisme et l’internationalism des classes sociales”, V. Karady(엮음), Textes vol. 3 (Paris: Minuit, 1975).
- Durkeim, E.(1906ㄴ), “Internationalisme et lutte des classes”, J-C. Filloux(엮음), La science sociale et l’action (Paris: PUF, 1970).
- Durkeim, E.(1908), “Pacifisme et patriotisme”, J-C. Filloux(엮음), La science sociale et l’action (Paris: PUF, 1970).
- Durkeim, E. & Denis, E.(1915ㄱ), Qui a voulu la guerre. Les origines de la guerre d’après les documents diplomatiques (Paris: Armand Colin, 1915).
- Durkeim, E.(1915ㄴ), L’Allemagne au-dessus de tout. La mentalité allemande et la guerre (Paris: EHESS, 2015)
- Durkeim, E.(1915ㄷ), “French rebut Germany’s bad faith accusations”, Durkheimian Studies/Etudes durkheimiennes, n°3, 1997.
- Durkeim, E.외(1916), Lettres à tous les Français (Paris: Comité de publication, 1916).
- Durkeim, E.(1917ㄱ), “La Politique de Demain”, Durkheimian Studies/Etudes durkheimiennes, n°5, 1999.
- Durkeim, E.(1917ㄴ), “Notice biographique sur André Durkheim” V. Karady T

extes vol. 1 (Paris: Mounet, 1975).

Gauchet, M., *A l'épreuve des totalismes. 1914-1974* (Paris: Gallimard, 2010).

Joas, H. & Knobl, W., *War in Social Thought. Hobbes to the Present* (New Jersey : Princeton U.P., 2013).

Karsenti, B., "Durkheim et l'Allemagne. Commentaire à vive voix", E. Durkheim, *L'Allemagne au-dessus de tout. La mentalité allemande et la guerre* (Paris: EHESS, 2015).

Lemieux, C., "La politique sociologique selon Durkheim", Karsenti, B. & Lemieux, C., *Socialisme et sociologie* (Paris: EHESS, 2017).

Mauss, M., "In memoriam. l'oeuvre inédite de Durkheim, et de ses collaborateurs", V. Karady(역음), *Oeuvres vol. 3* (Paris: Mounet, 1969).

Mauss, M., *Ecrits politiques* (Paris: Fayard, 1997).

Winock, M., *La France politique. XIX^e-XX^e siècle* (Paris: Seuil, 2002).

Ypsersle, van L., "Les «cultures de guerre» au coeur de la Grande Guerre", *Ethique, Politique, Religions*, n°10, 2017.

제3부 주제 발표 (2)

- ▷ 남북전쟁의 영웅들: 크레인과 휘트먼
- ▷ 세계대전기 와이즈만과 이승만의 독립외교

남북전쟁의 영웅들: 크레인과 휘트먼

김 영희 · 김 요섭(군산대학교)

1. 들어가면서

전 인류의 축제였던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후 나흘이 지난 2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투입하라는 긴급 연설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역사는 너무나도 길며, 전쟁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전쟁이 문학의 소재가 되었고, 미국 작가들도 남북전쟁 이후로 전쟁을 다루는 문학작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미국 문학에서 전쟁문학을 시대별로 나누면, 남북전쟁 문학, 1차 세계대전 문학, 2차 세계대전 문학, 그리고 월남전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미국 전쟁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 문학의 대표적인 시인 월트 휘트먼(Walt Whitman 1819-92)의 시집 『풀잎』(*Leaves of Grass*)과 『북소리』(*Drum-Taps*)와 스티븐 크레인(Stephen Crane 1871-1900)의 『붉은 무공훈장』을 통해 남북전쟁의 영웅들의 모습을 추적하고자 한다.

2. 휘트먼과 전쟁영웅

미국 초월주의 시인 휘트먼이 그리스도적 영웅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게 된 계기는 미국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 1861-65)이다. 그는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 간 무명용사들의 처참한 죽음에 대한 애도와 회상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볼 때, 죽음과 전쟁의 비참함 앞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고, 자랑스럽게 휘날리던 군기와 전쟁의 잔해들은 찢기고 피가 묻어 역사 속으로 순간 사라질 뿐이었다. 그는 『풀잎』과 『북소리』에 이를 기억하고 반향하였다. 「라일락이 지난 번 앞뜰에서 꽃 피웠을 때」에서, 휘트먼은 “전쟁터의 수많은 시체들을 보았다,... 나는 전쟁의 잔해들, 살해당한 모든 병사들의 시체를 보았다,... 살아 있는 자는 살아남아서 고통을 받았고, 그들의 어머니들도 고통을 받았다”(CPCP 466)라며 링컨과 젊은 병사들

에 대한 애도를 그치지 않는다. 이처럼 남북전쟁과 그들의 죽음은 휘트먼에게 형제에 대한 사랑, 동지애와 더불어 그리스도적 영웅을 깨닫게 하였고, 그를 위대한 시인으로 남게 하였다.

『북소리』의 북과 나팔소리는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긴장을 맛보게 하였다. 1965년 『북소리』는 남북전쟁에 대하여 휘트먼이 쓴 단행본 시집으로 후에 『풀잎』에 합쳐졌다. 『북소리』 시들의 뿌리가 되는 몇 개의 시들은 휘트먼이 전쟁 전에 미리 써놓은 것이다(Eiselein 193). 전쟁의 분위기는 남북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종을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쳐라! 쳐라! 북을!」(“Beat! Beat! Drums!”)에서 “북소리는 사람과 만물의 마음을 깨우고 무장”(CPCP 419)시키는데, 첫째 행부터 “쳐라! 쳐라! 북을!”이란 말이 급박하게 세 번 강조되어 나타난다. 이를 리고프는 휘트먼이 전쟁 북소리를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시적 장치로 이용하여 “소리가 의성적으로 반영되고, 소리가 반복되어서, 의미적으로(Semantic) 어떤 긴장”(265)을 효과적으로 더했다고 말한다. 전쟁 나팔소리도 19세기 미국의 비참한 현실로 현대의 독자들을 직접 이끈다. 남북전쟁 전에 미국 사회는 노예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사회문제와 정치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시인과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던 휘트먼은 거대한 국토를 지닌 미국 사회가 현실적으로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음을 발견하고 시인을 결심한다. 「신비한 나팔수」(“Mystic Trumpeter”)에서 전쟁 중에 벌어지는 “살육, 무자비한 산적들의 행위, 강탈과 살인, 침몰하는 끔찍한 광경들”(CPCP 581)이 펼쳐지고, 시인은 “나팔수가 연주하는 나팔이 바로 자신”(CPCP 582)이라고 상상하였다. 시인의 심장이 녹고, 뇌가 녹아 그것을 움직이고, 끌어당기고, 변형되어 나팔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어두운 세상에 보내는 광경은(CPCP 582), 휘트먼이 바로 신의 고수(敲手)와 나팔수가 되어 시대를 예언하는 시인이 되었음을 보인다.

이처럼 세상에 잘 알려지지 못하고 무명의 시인으로 사라질 수 있었던 휘트먼을 위대한 시인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든 중요한 계기는 바로 전쟁이었다. 우연하게도 휘트먼은 남북전쟁 중에 1862년 12월 16일 『뉴욕 헤럴드』(*New York Herald*)에 실린 전쟁 부상자 명단에서 G. W. 휘트모어(G. W. Whitmore)란 이름을 발견하였는데, 전쟁에 참전 중이던 동생 조지(George)의 성의 철자가 잘못 인쇄된 것이라 확신하고, 급히 모은 50달러를 가지고 워싱턴으로 가서 전선 51연대의 동생 조지를 찾았다(Allen, *Solitary* 283). 휘트먼은 동생을 찾으러 그가 입원한 병원의 앞마당을 지나가다가 나무 아래에 수술로 잘린 병사들의 팔과 다리들의 거대한 더미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것은 그에게 끔찍하고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그 팔과 다리들이 동생 조지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때, 병원의 앞마당에 있던 처참하고도 끔찍한 팔다리 더미들은 휘트먼의 뇌리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이 되었다. 여기서 휘트먼은 버려진 팔다리들의 주인이었던 어린 병사들 모두가 동생 조지와 같은 그의 형제들이고 가족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전쟁의 쓰디쓴 모순”(Allen, *Solitary* 285)을 인식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휘트먼

은 만인이 그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그는 남군과 북군을 구별하지 않고 병사들의 죽음을 지키고 위로하며 사랑을 주는 자로 남길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전쟁의 슬픔을 담은 『북소리』는 이전의 “황홀하고 원초적이고 전기적인 목소리가 담긴 『풀잎』의 초판”의 시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고통에 괴로워하는 성숙한 시인”(Gutman 192)의 모습을 담은 전쟁시집이 된다. 휘트먼은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워싱턴 병원에서 죽어가는 소년 병사들을 자신의 친구나 가족처럼, 동생이나 아들처럼 여기고 보살피기 시작하였다. 어제까지 노래하며 명랑하던 사랑스러운 어린 청년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 심한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참담함을 보고, 그는 그들을 위해 병원의 무료 간병인으로 남아 3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봉사하였다(Allen, *Solitary* 283). 휘트먼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동지애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고 그들은 바로 그의 영웅들이 되었다.

「북소리」에 기록된 시들은 휘트먼의 실제 전쟁 경험들이 대부분이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전쟁지에서 여명」(“A Sight in Camp in the Day-Break Grey and Dim”)에서, 시인은 한 죽은 청년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된다(*CPCP* 441). 그리고 희생된 모든 사람은 그에게 희생양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었다. 휘트먼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모든 위로와 사랑을 주었다. 부상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의 지극한 간호와 입맞춤은 그에게도 치명적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를 들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고 회복시키려는 열망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Allen, *Solitary* 294). 이런 그의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그를 현현한 그리스도 보듯이 하였다. 윌리엄 오코너(William O’Conner)는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부상자들, 병든 자들의 형제가 된 휘트먼을 진정한 그리스도 정신을 지닌 사람으로 극찬하였다(현영민 296에서 재인용). 하지만 병자와 부상자들과 함께 지낸 그의 3년은 중년의 그에게 과로로 인한 증풍과 반신불수로 쓰러지게 하였다.

휘트먼은 그리스도의 형제애/동지애가 미국 사회를 이끄는 힘이 되어서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철학으로 나가길 바랐다. 그는 「시체를 넘어서 들린 예언의 한 목소리」(“Over the Carnage Rose Prophetic a Voice”)에서 인간이 무력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있으나, 더 강한 어떤 것이 자유를 유지하고 평등을 보증하고, 국가를 튼튼히 만들 것을 예언한다.

남자다운 애정을 보는 것이 집이나 거리에서 관례가 될 것이다.
가장 겁 없고 무례한 사람이 살짝 얼굴을 대면할 것이다
자유의 믿음은 연인들이 될 것이고,
평등의 연속이 동지들이 될 것이다.(Allen, *Solitary* 340에서 재인용)

자 그러면 나는 견고한 대륙을 만들 것이다
태양이 지금껏 비춘 민족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을 만들겠다.

나는 신성하고 매력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
동지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동지의 사랑으로,(CPCP 272)

더 나아가 그에게 전쟁터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싸우는 선장과 선원들(CPCP 224),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무너진 더미에 깔려 가슴뼈가 일그러져 죽어가는 소방관은 바로 그 자신이 되고 그리스도적 영웅들이 되었다(CPCP 225). 휘트먼은 각각의 개인으로부터 전체의 사랑을 인식하면서 모든 이들의 고통을 시로 내면화하였다. 따라서 휘트먼의 그리스도적 영웅은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 비참하게 희생된 모든 사람이 된다. 휘트먼은 『풀잎』과 『북소리』에서 그들을 위한 찬가를 부르고 축복하였다. 전쟁에서 정복당한 자들과 살해된 자들, 그리고 승리자들과 마찬가지로 패배자들도 그에게는 동등한 그의 영웅이 되었다.

3. 크레인과 성장하는 전쟁영웅 헨리 플레밍

미국의 사실주의 작가 크레인은 휘트먼과 달리 직접 미국 남북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1895년에 발표한 『붉은 무공훈장』은 전쟁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소설이자 가장 훌륭한 전쟁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크레인 이전의 전쟁소설 작가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의 예술성과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크레인은 『붉은 무공훈장』 출판 이후 그리스-터키 전쟁(1897년)에 종군기자로 참여했지만, 멀리서 전쟁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898년에 그는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종군기자로 참가했는데,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전쟁이었다. 그는 이러한 전쟁에 대한 직접경험을 그의 「전쟁수기」(“War Memories”)의 서두에 “to get at the real thing... it seems impossible”—to its last (“You can depend on it that I have told you nothing at all”)(“진짜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마지막까지(“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의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의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하여서 진정한 전쟁소설을 쓰는 시도는 매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붉은 무공훈장』은 가장 훌륭한 전쟁소설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 소설은 전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헨리 플레밍(Henry Fleming)이라는 한 농촌 출신의 청년이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후 영웅이 된다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이다. 소설 내내 크레인은 헨리를 “젊은 군인”(the young soldier) 혹은 “젊은이”(the youth)로 지칭하는데, 이는 헨리의 젊음의 가장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그를 특징짓는다고 볼 수 있다. 헨리는 첫 전투중 만난 베테랑 병사들과 달리 지치지 않는다. 그는

비록 순진하지만, 용기와 명예의 전통적인 모델을 믿으며 죽은 병사를 방패 위에 얹는 그리스 전통을 인용함으로써 전투에서 죽는 이미지를 낭만적으로 표현한다. 반면에 헨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 개념들을 시험할 만큼 전쟁에 대하여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가장 열정적인 신념은 환상에 불과하므로, 그를 허영심 많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게 한다.

헨리가 전투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고귀함과 거리가 멀다. 전쟁의 철학적 토대는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도 없다. 대신 헨리는 명성을 원하는데, 그는 전쟁터에서 인상적인 활약이 종교와 교육의 길들어진 효과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는 것을 희망한다. 입대 전 이상과 꿈으로 가득했던 헨리는 첫 전쟁터에서 전쟁의 현실에 깊이 좌절하고 자신이 막연하게 갈망했던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첫 전투에서도 망친 후 헨리는 숲속에서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싸우기 위해 남아있던 군인들을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을 만큼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한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연약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숲속의 빈터를 헤매다 한 병사의 썩어가는 시체를 발견한 헨리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존재는 그가 도망쳐 나왔던 군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온다. 잠시 뒤 부상병들의 대열에 합류한 헨리는 내심 그들의 상처를 부러워하는데, 그들의 부상이야말로 용기에 대한 붉은 무공훈장이기 때문이다.

이제야 전쟁의 실재를 맞본 헨리는 아직 성장 중이다. 이 소설을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로 한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나중에 영웅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헨리는 영웅으로 탈바꿈하기 전 전쟁터에서 도망을 칠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용감하게 싸울 것인가는 두 문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 소설에서 크레인은 헨리의 행동뿐 아니라 그의 내적 갈등을 추적한다. 다시 말해서 이 소설은 헨리가 속한 연대의 전투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의 내적 심리적 구조를 추적하고 있다. 헨리는 자신의 내적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아무도 그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더욱더 깊은 공포에 빠진다. 그는 전쟁에 관한 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수의 존재”(11)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공포를 극복하고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

헨리의 성장은 그가 어떻게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고 군대라는 조직의 한 일원으로 정체성을 찾게 되면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는지 이 소설의 제목에 나오는 “용기”의 관점으로 살펴보자. 크레인은 이 소설에서 전쟁과 군대, 그리고 용기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와 개념을 전복시키고 있다. 크레인의 전쟁은 남북전쟁 이전까지의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전쟁이 아니다. 기존의 전쟁소설에서의 죽음은 대의명분을 위한 고귀하고 희생적인 행동이었기에, 죽음은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크레인의 소설에서의

죽음은 아름답지도 희생적이지 않은데, 크레인은 전쟁에서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헨리가 본 죽은 병사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다.

밭 밑에는 몇 구의 시체가 흉물스런 상태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아주 이상한 형태로 뒤틀려 있었다. 팔은 꺾여 있었고 머리는 도저히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되었나 상상하기 힘들게 꼬여 있었다. 마치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던져진 것 같았다(33).

크레인은 “키 큰 병사”로 지칭한 짐 콩클린의 옆구리 부상 부위를 “마치 ... 늑대한테 물어뜯긴 것처럼 보였다”(51)고 묘사하는데, 이러한 묘사는 전쟁의 참상에 대한 사실적 극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참혹한 전장은 헨리가 꿈꾸던 낭만적인 생각은 처참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크레인은 전쟁을 국가적 비극이라던가 어떤 이념적 구도 속에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한 농촌 출신의 청년의 내적 심리변화과정을 추적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 전쟁터에서 헨리의 성장을 이끌었던 용기를 과연 크레인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크레인에게 용기란 의식과 이성의 산물이라기보다 무의식과 우연의 산물이다. 첫 번째 전쟁터에서 도망쳤던 헨리는 전쟁의 공포를 과연 극복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헨리가 다음 전쟁터에서 공격 작전에 참가해서 적진에 돌진하고 적의 깃발을 빼앗으면서 그의 장교들과 동료들에게 자신의 용감성을 인정받게 된다. 크레인은 이러한 헨리의 돌격이 정신적인 무감각 혹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암시한다. 크레인에게 공포란 극복되거나 초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는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헨리가 무감각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그 공포를 잊어버린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필자는 공포를 잠시나마 잊어버린 것 역시 일종의 공포 극복으로 간주하고 싶다.

크레인은 이 소설에서 전쟁이 주는 도덕적인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해주기 보다, 헨리라는 한 병사의 심리적 변화를 추적하면서 그가 어떻게 전쟁터에서의 공포의 경험과 극복을 통한 한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헨리는 숲속에서 본인의 헤맬 때 만났던 부상으로 죽어가던 누더기 병사(a tattered man)를 저버리면서 자신의 연대로 복귀했는데, 그 누더기 병사는 결국 죽고 만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끝까지 누더기 병사를 돌보지 못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크레인은 여기서 헨리의 도덕적 성장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데 누구보다 헨리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은 그의 동료 병사 윌슨이다. 윌슨은 헨리가 첫 번째 전투 이후 숲속으로 도망쳤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그의 곁을 지킨다. 전쟁은 먼저 윌슨을 변화시켰으며, 헨리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신 역시 성장하게 된다. 윌슨은 전쟁을 경험하기 전 매우 오만한 병사였지만, 전쟁을 통해 자신을 “바보”로 지칭하면서 겸손해지게 된다. 크레인은 이러한 윌슨의 변화를 세상의 “지혜”를 얻은 것과 동일시한다(70).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헨리가 무감각 상태에서 적진에 돌진

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예전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한 속죄로도 볼 수도 있다. 헨리와 윌슨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항상 연대의 선봉에 서서 승리의 주역이 된다. 크레인은 이러한 헨리와 윌슨을 “내면적인 지식을 터득한 유일한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격찬한다(86). 여기서 내면적인 지식이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헨리는 전쟁을 통해 공포 및 시련을 경험했지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터득하면서 결국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크레인은 참혹한 전쟁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기존 전쟁소설의 낭만적인 이미지를 전복했지만, 전쟁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는 전쟁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비극의 현상이지만, 이러한 현장에서 겪은 한계를 통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헨리를 통해 전쟁의 부정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시도한다.

4. 나가면서

휘트먼과 크레인은 『북소리』와 『붉은 무공훈장』을 통하여 남북전쟁과 그들의 영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남북전쟁은 1861부터 1865년간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벌인 전쟁으로써 직접적인 동기는 몇몇 주의 연방으로부터 분리와 탈퇴에 대한 헌법에서 인정 여부에 관한 헌법해석의 문제와 노예제도와 관련된 각 지역 간의 이해 대립이 얹혀있었다. 4년에 걸친 격전 끝에 남부가 패하여 연방으로 복귀하는 데 10년이 걸렸지만, 미국은 결국 전쟁의 슬픔을 이겨내고 자유와 평등을 위해 국가적 단결을 한층 굳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하여 휘트먼은 실제로 전쟁터에서 무료 간병인을 자원하면서 부상병과 사망 병사들에게 동료애와 형제애를 실천했다. 휘트먼은 기존의 낭만적인 영웅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희생과 용기에 대한 그들 영웅에게 보내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반면 크레인은 사실주의적 영웅주의를 제안하면서, 헨리와 그의 내면적인 성장을 도운 윌슨을 통해 그들의 용기를 통해 승리의 주역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영웅은 “사회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그 가치를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 대중을 이끌고 세상을 경륜할 만한 인물”을 말한다. 휘트먼과 크레인의 전쟁과 영웅에 대한 인식의 접근법은 달라도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식 보통사람 영웅의 소개와 더불어 전쟁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킨 점은 유럽식 영웅주의와 차별점으로 주목된다.

Works Cited

- Allen, Gay Wilson. *The Solitary Singer*. Rev. ed. New York: State U of New York P, 1967.
- Crane, Stephen. 1895. *The Red Badge of Courage*. New York: Norton, 2008.
- Eiselein, Gregory. "Drum-Taps (1965)." *Walt Whitman: An Encyclopedia*. Eds. J. R. LeMaster and Donald D. Kummings. New York: Garland P, 1998. 193-94.
- Gutman, Huck. "'Drum-Taps'(1865)." *Walt Whitman: An Encyclopedia*. Eds. J. R. LeMaster and Donald D. Kummings. New York: Garland P, 1998. 190-92.
- Rugoff, Kathy, "Opera and Other Kinds of Music." *A Companion to Walt Whitman*. Ed. Donald D. Kummings. Malden: Blackwell, 2006
- Whitman, Walt. *Complete Poetry and Collected Prose*. Ed. Justin Kaplan. New York: Library of America, 1982. (CPCP로 약기함)
- 현영민. 『미국 문학의 이해』. 대전: 문경출판사, 1998.

세계대전기 와이즈만과 이승만의 독립 외교³⁴⁾

유 지윤(연세대학교)

목 차

- I. 서론
- II. 세계대전 시기 와이즈만의 독립외교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 1.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발포어 선언의 함의
 - 2.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독립외교 활동
- III. 세계대전 시기 이승만의 독립외교와 1948년 대한민국 독립
 - 1. 제1차 세계대전 전후 기독교 네트워크와 외교활동
 - 2.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기독교 네트워크와 대미외교
- I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한국과 이스라엘은 1948년 같은 해에 독립된 국가를 설립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만약에 트루만이 6.25전쟁 개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독립을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현재적 관점에서 극동과 근동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민족적 갈등의 중심에 서있는 것도 어쩌면 당시 트루만의 개입의 영향이다. 그러나 그의 순발력 있는 결정은 수십년간 혹은 수천년간 고통받던 약소민족을 살렸다. 그렇게 살아난 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적 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발전국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이승만의 지정인식의 방향은 그가 머물고 있던 미국에서 서쪽을 향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시간적 공간적 경험이 결합된 것이었

34) 이 발표문은 발표자의 이승만 관련 박사학위논문(2022)에 기초하여 와이즈만과의 비교를 새롭게 시도해보고자 한 것으로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다. 하임 와이즈만의 지정인식은 유럽에서 중동쪽을 바라보는 동향이었고, 그의 출신지인 러시아를 벗어나 유럽에서 공부하는 동안 형성된 시간적 공간적 경험이 더해진 것이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인 유럽중심의 제국동학과 유라시아 대륙의 러시아, 일본 등의 제국동학이 독립을 열망하는 민족의 국제동학과 문명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형태이다.

이 연구는 19세기 후반 이후 근대문명의 격동기에 반세기에 걸쳐 독립활동을 펼치고 그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독립지도자들을 비교했다. 하임 와이즈만(Chaim Weizmann, 1874~1952)과 이승만(Syngman Rhee, 1875~1965)은 1948년 5월 14일과 8월 15일 차례로 독립을 선언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들이었다.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독립된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열망을 갖고 활동했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은 유라시아 동서 양 끝에 위치하여 거리가 멀지만 지정학적 유사성을 갖는다. 영토를 둘러싼 분쟁을 지속적으로 겪었으며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있고,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독립의 과정에서도 유사성이 발견된다.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동지역 오스만투르크 제국에 속해 있던 팔레스틴과 일제의 식민지 조선을 자민족의 독립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 및 정치지도자들의 인식은 수천년 전 같은 공간에 나라를 세웠던 조상들의 역사로부터 비롯되었다. 와이즈만을 비롯한 시온주의 운동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때 약속의 땅에 대한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독립의 이상으로 여겼다(Chapman 2002). 한편,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코리아는 단군시대부터 약 사천년간 독립국이었던 것을 독립정신의 근간으로 삼았다(Yoo 2011).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성된 시온주의자들의 대표였던 와이즈만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었고, 구미위원부의 주미외교위원부 대표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이승만의 지도자로서의 독립의 방략은 국제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독립외교 활동을 추구했던 공통점을 가진 이승만과 와이즈만의 국제사회적 네트워크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과의 연관성 속에서 재조명해보았다.

하임 와이즈만에 관한 연구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유대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반면(Weisgal and Frankfurter 1944, Weisgal 1977, Stein, Yogev, and Weizmann 1968, Segev 2006, Rose 1989, Reinhartz 1993, Friesel 1977, Fraser 2010), 이승만에 관한 연구는 한국 관련된 연구는 한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유지윤 2022). 인물 비교 연구 중에서 하임 와이즈만과 다른 인물들을 비교하는 연구나 이승만과 다른 인물을 비교하는 연구가 존재하나, 이승만과 하임 와이즈만을 비교한 선행 연구는 여태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비교역사학적 방법을 축으로 하여 지정학이론과 역사사회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대상으로 수집 및 발굴한 자료는 미국 트루만 도서관에 소장된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된 문서와 6.25전쟁 관련 문서,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에 소장된 이승만문서,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된 한미관계문서 등이다.

II. 세계대전 시기 와이즈만의 독립외교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1.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발포어 선언의 함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유대인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03년 키시노프 포그롬(Kishinev Pogrom)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다(Penkower 2004). 헤르츨은 드레퓌스 사건을 보도하면서 유대인의 시대적 당면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유대 국가』라는 저술을 통해 유대인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저술은 당시 유럽 지역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반유대주의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에게 “Jewish National Home”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와이즈만은 1874년 11월 27일 러시아 모톨(Motol) 지역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Pinsk에서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았고 독일 베를린과 스위스 대학에서 폴리테크닉(Politechnic)을 전공하였으며 스위스 Fribourg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Weisgal 1977). 하임 와이즈만의 교육정신은 유대인의 민족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대인의 민족성과 종교적 특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만나서 근대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유대인의 종교적 특성과 민족성은 원래 하나였으나 그들이 겪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 유대인 공동체가 머무는 곳에서 근대적 요소가 나타났다. 유대인의 민족성에 관한 기원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토라(Torah)라고 부르는 경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유목민의 특성을 지닌 유대인들은 토라를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나갔다. 토라를 중심으로 랍비(Rabbi)라고 불리는 선생님들과 제사장(Priesthood)의 역할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Johnson 1987).

유대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기원이 되었으며 헬레네의 지적 문화발전, 로마법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발전, 중세의 신분 질서 등에서는 유대교의 합리적인 윤리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신과의 독특한 관계에 기반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른 나라나 민족과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면 버림받음으로 소위 약속된 땅을 빼앗기게 되나, 유일신으로 여겨지는 여호와에 복종하면, 신의 약속을 통해 보호받고 신의 힘을 보장받았다. 신과 맺은 약속을 따라 살았던 유대인들은 토라를 개인적인 단계에서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족적

인 개념으로까지 승화시켜서 민족의 발전에 늘 관심이 있었다.

반유대주의는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주제였다. 1898년에 일어난 드레퓔스 사건에 대한 반향으로 에밀 졸라의『나는 고발한다』가 쓰여졌으며, 유대인 랍비의 가정에서 자란 프랑스의 고전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사안을 유대민족의 역사와 연관시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전환점으로 인식하려고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유대국가(A Jewish State)’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테오도르 헤르츨(Theodor Herzl)은 1897년, 유럽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반유대주의 현상을 보며, 유대국가 설립에 대한 계획을 글로 옮겼다(Herzl 2008). 그가 이것을 쓴 후 5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였다. 유대인의 민족성이 정치적 행동으로 발현되어 시온주의(종교적 민족주의)운동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이스라엘 건국을 전후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은 유럽 곳곳에서 환영 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었다. 헤르츨이 유대인 회사와 유대인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금 조달은 은행을 통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헤르츨을 비롯한 많은 시온주의자들의 노력에다가 근대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정신이 결합되어 이스라엘 국가건설이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일어난 노르망디에서 일어난 재난으로 프랑스사회는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 중에 뒤르케임은 『누가 전쟁을 요구하는가?』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작성했다(터너 1998). 쾰바르트는 유대인의 경제활동에서 그들의 종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청교도(Puritanism)와 자본주의 관계에 대해 논한 베버에 대해 반기를 들기 위해 저술을 시작한 쾰바르트는 오히려 청교도와 자본주의와의 관계의 실재(reality)를 유대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유대인의 윤리는 유대인의 법에서 나온 것인데, 그 율법은 신(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유대교와 분리할 수 없는 신성한 규정이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의무였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의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고 가르쳤다.³⁵⁾ 유대인들은 “유일한 책(the Book)³⁶⁾의 사람들”이었다.

쾰바르트는 유대교의 참고문헌들로 5가지 예를 들었다. 첫째로, 2차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의 구약성서이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히브리어로 읽혔고, 디아스포라 지역에서는 헬라어로 읽혔다. 둘째로, 2~6세기에 유대인들이 종교경전을 가르칠 때 사용되던 탈무드이다. 셋째로, 12세기에 합본된 Maimonides경전과 넷째로, 13~14세기에 쓰

35) 쾰바르트는 구약성서 신명기 28장을 인용하며 여호와(Jehovah: 하나님의 히브리어적인 이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따르는 약속에 대하여 언급한다.

36) The Book은 토라를 의미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인 구약성서를 이렇게 표현했다.

여겼고 두림이라고 불리는 야곱 벤 아셀의 경전과 마지막으로 16세기에 쓰여진 조셉 카로 경전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언급한 토라이며, 토라의 중요성은 여호와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성립된다. 쾰바르트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유대교와 자본주의의 유사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God and Israel)사이에서 법적으로 규제된 관계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못박는다. 유대교의 종교체계에서 여호와와 그의 선택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Sombart 1951).

독일의 사회학자 쾰바르트(Werner Sombart)는 16, 17, 18세기 유럽 근대국가의 발전에서 유대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째, 유대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왕정의 군대에 물질이나 무기를 후원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국가나 왕정의 일반적인 필요를 공급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유럽 근대 국가의 발전에 유대인이 공헌하였다는 것은 그 사회에 부유한 유대인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안녕과 발전에 관심이 컸던 유대인의 면모를 강조한다. 쾰바르트는 이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첫째로, 유대인들 중에 군대나 왕실 등으로 식료품을 납품하는 상인이 많았고, 둘째로, 유대인들 중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재무관이 많았다는 것이다(Sombart 1951). 와이즈만의 부친은 목재를 다듬어 발틱 해에 띄우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의 가족은 유대식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집에는 '(시온으로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있었다.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의 랍비 한 명은 와이즈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우리가 시온으로 귀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많은 것을 알아야 하며,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네.

그 랍비의 말처럼 하임 와이즈만은 이후 유대인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독일과 스위스로 건너가 박사학위를 받고, 시온주의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다. 또한 1925년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히브리대학교가 세워지기까지 하임 와이즈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스위스, 영국 등의 지역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와이즈만의 저술 중에 아래의 인용문을 참고하면, 하임 와이즈만은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와이즈만이 러시아에서 서유럽으로 이주하여 공부하게 된 배경에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반유대주의 사상적 흐름이 있었다. 그 흐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서가 1882년 빌루 그룹(Bilu Group)의 선언문(Manifesto)이다.

빌루는 구약성경 이사야 2장 5절에 나오는 첫번째 편지이다: “야곱의 집이여, 오라, 우리로 가게 하라.” 빌루임은, 오백여 명의 카르코브 지방 출신의, “시온을 사랑하는 사람들(호베베이 시온)”의 일부분인데, 18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일어났으며,

1881년의 포그롬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었다. 이 선언문은 1882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빌루 그룹에 의해 발행된 것이다(Laqueur and Rubin 2001).³⁷⁾

이 문서는 유대국가를 세워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헤르츨의 1896년 저작보다 15년 정도 앞서 기록된 것인데, 1881년 러시아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나타난 포그롬(Pogrom)에 대한 반발로 작성된 것이었다. 과거 그들의 영화를 되새기며 이스라엘의 성전이 복원되기를 바라는 열망도 담겨 있었으며, 직접적으로 터키 제국의 술탄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제국 내에 유대인의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는 유대인들만의 행정 기구를 원한다는 선언도 포함되어 있었다(Laqueur and Rubin 2001, 3-4). 당시 유대인들은 술탄의 제국 오스만 투르크와 제정 러시아 양대 산맥의 영향권 아래에서 제국에 대한 그들의 민족적 감정을 이 문서에 담아낸 것이다.

와이즈만은 1910년에 영국의 시민권을 얻고 맨체스터 대학 화학 전공 교수가 되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영국에서 활동하며 유대인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맨체스터 대학 화학과 교수로 활동하던 와이즈만은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정부로부터 유대인을 위한 국가 설립의 단초가 되는 발포어 선언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팔레스타인 땅이 영국의 식민지로 되는 바람에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

1897년에 제1차 세계 시온주의자 회의가 스위스의 바젤(Basel)에서 열렸다. 헤르츨(Theodore Herzl)이 주관하는 모임이었으며, 참석자들은 팔레스타인에 자신들의 국가를 세울 것을 스스로 선언했다. “바젤 강령”(Basel Program)에 “시온주의는 유대인을 위한 공공의 권리로서 보증된 비호지를 팔레스타인에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안을 명기하였다. 이런 이념의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한 헤르츨은 뜻을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채 1904년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헤르츨이 사망한 후에도 시온주의자들은 계속적으로 모임을 열어갔으며,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김용기 1996, 38-39).

제1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 영국 맨체스터 대학 교수 재직시절 와이즈만은 합성 아세톤(Synthetic Acetone)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의 아세톤보다 5~6배 많은 양의 아세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전쟁물자로서 무기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이 수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부 고위관리들로부터 신임을

37) Bilu are the first letters of a passage in Isaiah, Chapter 2, Verse 5: “House of Jacob, come, let us go.” The Biluim, about five hundred young people mainly from the Kharkov region, were part of the wider movement of the “Lovers of Zion” (Hovevei Zion), which had developed in Russia in the early eighteen-eighties, mainly under the impact of the pogroms of 1881. This manifesto was issued by a Bilu group in Constantinople in 1882(Laqueur and Rubin 2001).

연었다. 이로써 유대인들의 시온주의 운동이 발포어 선언이라는 결실을 맺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1917년 11월 2일에 영국 외무부 장관 발포어(Arthur J. Balfour) 경은 훗날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석이 될 만한 선언을 하였는데, 이 선언은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의 열망을 담아낸 짧은 편지형식의 글이었다(Laqueur and Rubin 2001). 소위 발포어선언(The Balfour Declaration)은 영국 외무장관 발포어(Arthur Balfour)가 로스차일드(Nathan Rothschild)에게 보낸 서한을 의미한다. 이 서한에서 영국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 건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용기는 이 지지선언이 곧, 북미지역 유대인들을 자극시켜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토록 유도하고자 하는 영국의 전략이었다고 해석했다. 이 선언의 의미는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서도 확인되었다(김용기 1996, 38-39).

시온주의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으로 알려진 현대 이스라엘 건국의 선구자 테오도르 헤르츨의 『유대 국가(1896)』저술은 당시 유럽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 지식인들에게 유대인들로 구성된 국가를 세우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스위스 바젤에서 1차 시온주의 회의가 열렸던 1897년에서 헤르츨의 사상이 더욱 확산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와이즈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된 와이즈만, 초대 수상이자 국방부장관 다비드 벤구리온, 2대 대통령 이츠하크 벤 쯔비(Yitzhak Ben-Zvi), 초대 국회의장이 된 요세프 스프린자크(Yosef Sprinzak) 등이 대표적인 시온주의자들이다(Rainharts and Shapira 1996, Hertzberg 1970, Weisgal and Frankfurter 1944, 김용기 1996, 이강근 2008). 시온주의자들로 대표되는 이들은 크게 유럽지역에 남아서 시온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 활동하는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다. 또한 시온주의 운동에 있어서 헤르츨의 저술의 선구자격인 문서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 국가(1896)』보다 15년 정도 앞선 1882년 빌루 그룹(Bilu Group)의 선언문이었다. 이 문건은 1881년 러시아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나타난 포그롬(Pogrom)에 대한 반발로 작성된 것이었다. 과거 그들의 영화를 되새기며 이스라엘의 성전이 복원되기를 바라는 열망도 담겨 있었으며, 직접적으로 터키 제국의 술탄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제국 내에 유대인의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는 유대인들만의 행정기구를 원한다는 선언도 포함되어 있었다(Laqueur and Rubin 2001, 3-4).

시온주의 운동의 지도자로서 와이즈만은 외교적으로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활약하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가장 큰 기여 중에 한 가지는 정치적 시온주의자들과 실제적 시온주의자들간의 대립을 뛰어 넘어서 종합적 시온주의적 개념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연합시키는데 있었다(김용기 1996).

와이즈만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시온주의 정신과 건국정신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아래의 인용문들은 와이즈만이 이스라엘 건국정신의 기반을 토라

(구약 성경), 즉 유대인의 경전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노동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땅은 우리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대인의 노동은 토라의 큰 부분 중 하나이다. 우리가 그 것을 숙고하여 현실로 이끌어야 한다.[1913] (Weisgal and Frankfurter 1944, 299)

시온주의자들의 희망은 제국주의하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여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오스만 제국의 쇠망과 동시에 불거지게 되었는데, 와이즈만은 러시아 통치하에서 고통을 겪는 유대인들을 돕고자하는 것이 시온주의의 핵심이며, 이것은 반제국주의 사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반제국주의 사상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1919년 1월 3일에 맺어진 파이잘-와이즈만 협정이 이를 반증해준다. 이 협정은 유대인 시온주의 운동의 지도자인 Chaim Weizmann과 Emir Faisal이 평화회담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훗날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우유부단한 정책을 펼쳤다고 비난을 양쪽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협정도 그것과 관계가 있다(김용기 1996).

한편, 1917년 러시아 공산 혁명은 주변 국가에 큰 위협을 주는 촉매제였다. 와이즈만은 러시아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 때 유대인 게토 지역에서 경험한 러시아 체제는 반공산주의의 이념을 갖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³⁸⁾ 과학자로서 영국에서 명성을 얻게 된 와이즈만은 합성 아세톤을 개발에 성공하여 얻은 영향력을 활용하여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대학교를 세우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2.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독립외교 활동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3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유대인들이 국호를 '이스라엘'로 정하고 독립을 선언했다. 텔아비브에 마련된 장소에는 1897년 제1차 시온주의자 대회를 이끌었던 헤르츨의 초상이 걸려있었다. 이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은 벤구리온(David Ben-Gurion)이었다. 와이즈만은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와이즈만이 미국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 대미외교에 주력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벤구리온을 대표로 하여 이날 독립을 선언한 지 11분 만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승인하는 발표를 했다.

19세기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와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감행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와이즈만을 비롯한

3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에 히브리대학을 설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끌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구로크(Jeffrey S. Gurock)는 “American Judaism Between the two World Wars”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미국의 3대 주요 유대인 학습기관과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Reform Hebrew Union College의 모르겐스텐(Julian Morgenstern) 박사, 둘째, Reform Jewish Institute of Religion의 와이즈(Stephen S. Wise) 박사, 셋째, Conservative Jewish Theological Seminary의 아들러(Cyrus Adler) 박사는 공통적으로 미국 유대인 공동체의 데스티니(destiny)를 고민하며 미국사회에 정착하려 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다(Raphael 2008, 94).

미국은 왜 다른 민족의 독립을 지원했는가?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한 윌슨을 포함하여 트루만은 왜 타민족의 독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왜 20세기 후반 미국의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국가가 되었는가? 양국의 독립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인물들은 누구였으며, 외교사회적 연결망은 어떻게 구축되었나?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하여 이 연구는 역사사회학과 비교사회학, 종교사회학, 그리고 외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과 각국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 대사(Unofficial Ambassador) 역할을 한 인물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추적하고자했다.

트루만과 젊은 시절부터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에드워드 제이콥슨은 미국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세워야한다고 주장하며 유대인 독립운동가의 지도자로 활약하던 와이즈만을 트루만에게 연결해주는 매개역할을 했다. 바이츠만과 접견 이후 트루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영국이 물러나자마자 독립을 선언한 이스라엘을 승인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극동정책의 전환기적 결정을 주도한 트루만은 부통령으로서 갑작스럽게 승계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독립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의 인식의 중심에는 미국이 유럽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의 개신교 신앙위에 세워졌으며 그러한 건국이념을 유지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있었다.

III. 세계대전 시기 이승만의 독립외교와 1948년 대한민국 독립

1. 제1차 세계대전 전후 기독교 네트워크와 외교활동

벨라(Robert N. Bellah)는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 이후 약 200년이 되는 때에 집필한 저서에서 “미국 독립선언의 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널리 퍼져서 1789년의 프랑스 혁명에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의 지도자 호치민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Bellah 1967, 93). ‘아메리칸 리퍼블릭(American Republic)’이라고 불리는 독립선

언의 정신이 향후 미합중국의 중심개념이 되었던 것과 맥을 같이하여 이승만은 코리아(Korea)도 대한공화국(Korean Republic)으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했다. 이는 대한제국 시기 내한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도미하여 미국사회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유지윤 2022).

〈표 1〉 1948년 이승만의 미국체류기간 구분³⁹⁾

시기	연도	구분	비고
1차	1904~1910	대한제국 시기 도미 이후	1948년 대통령 취임 이전
2차	1912~1920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 취임 이전	
3차	1921~1932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 취임 이후 모스크바 방문까지	
4차	1933~1945	모스크바 방문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5차	1946~1947	해방 이후 미군정시기	

〈표 1〉과 같이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 총 5차례 미국에 체류하며 독립활동을 벌였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는 이승만의 2차 미국체류시기, 제2차 세계대전은 4차 미국체류기에 해당된다. 1912년 105인사건의 영향을 피하면서 미국 미니아폴리스 국제감리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1920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방문하기 전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국제 기독교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제국의 통치가 계속되면서 “자유와 독립”은 모든 한인들에게 더욱 절실했다.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의 범위가 제한되어 갈수록 안중근 의거와 장인환·전명운 의거와 같이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이후 종교의 자유까지 제한당하는 가운데 105인 사건이 발생했다.

1919년은 국제적으로도 한국 내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였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제국동학들끼리의 충돌이 일단락되면서 제국동학과 국제동학이 직면하는 시점이면서 한국인들에게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집행관 총재로 추대된 이승만은 미국에서 형성한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 1차 체류시기와는 다른 차원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자 시도했다. 파리평화회의에 참석중인 각국의 정상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 명의로 외교서한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활동을 추진했다.

임시정부 수반으로서 이승만은 3·1운동 이후 연속적으로 한국인들에 의해 발표된 독립선언문들의 영향력을 인지하고서 미국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외교독립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유영익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1919년 한 해에만 11회에 걸쳐서

39) (유지윤 2022,).

영문으로 독립을 호소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미 대통령 등 중요인사에게 서신을 보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11개의 문서 중 하나는 1919년 6월 파리강화회의에 보내진 것이었다 (유영익 2009).

한성감옥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이승만을 이후 국가관이 바뀌었다. 실질적으로 1919년에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낼 때에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기독교국가론을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한성감옥에서 저술한 독립정신에도 잘 나타나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곳에서 썩을 튀우고자 애쓰고 있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건국 4237(1904)년 6월 29일 독립요지 마침(이승만 2019).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은 네트워크 관리 및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활동의 수단으로 서한을 활용했다. 4월부터 6월 말까지 파리평화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낸다. 이 국가들은 19세기말 조선과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다. 이처럼 이승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후 본격적으로 서한외교를 추진한다. 4월부터 6월 말까지 파리평화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구한말 조약을 맺은 국가들, 즉 19세기말 조선과 조약을 맺은 나라들에게 우리 나라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며, 거중조정 조항을 강조하며 그것을 지켜달라고 정식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나라 중에는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정상에게 보낸 편지가 제일 많다.

이처럼 서한을 통해 ‘스스로를 소개’하는 방식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중에 하나로서 매클레인의 연구에서 언급한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제1차 미국체류를 시작할 당시 재한 선교사들로부터 받았던 추천서한과는 전달방식과 서술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승만이 각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 중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들의 내용에는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기독교 네트워크에 관한 서술은 드러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종교적 혹은 민족주의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민주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미국의 정교분리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이승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후 본격적으로 서한외교를 추진한다. 4월부터 6월 말

까지 파리평화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구한말 조약을 맺은 국가들, 즉 19세기말 조선 및 대한제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들에게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며,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거중조정 조항을 강조하며 그것을 지켜달라고 정식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편, 이승만이 박용만 등이 주장했던 무장투쟁노선이 아닌 외교독립노선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서한을 교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작용했다(김명섭·박재원 2021). 이승만은 재미한인의 종교적 민족주의와 미국 문화 세속주의의 긴장을 인식하고 한국의 독립을 당위성을 주장하는 독립외교 활동을 펼쳤다. 제2차 미국체류 시기 미국의 대통령은 제27대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1857-1930)와 제28대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이다. 윌슨은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정도로 뚜렷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 위대한 국민의 충성심 안에서 제가 대통령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⁴⁰⁾

제1차 미국체류 시기 이승만의 프린스턴대학교 재학시기 총장이었던 윌슨은 대통령에 재선된 후 위와 같은 취임사를 남겼다. 이승만의 생애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들과의 관계정도의 측면에서 이 시기까지 윌슨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승만의 대한독립활동 방략은 미국 정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윌슨의 1914년 민족자결주의 선언에 따라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음에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히려 한국문제가 외면당하는 국제현실을 마주했을 때 적잖이 실망했던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1919년 삼일운동 이후 구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외교독립노선을 이어갔다.

이 시기 이승만의 기독교 네트워크는 1차 체류기보다 종교적 민족주의 특성이 약화되고 시민종교적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1차 체류기에 미국 대학들에서 미국의 역사를 공부했던 이승만은 시민종교적 특성을 실전에서 경험하게 된다. 『한국교회뫼박』을 저술, 출간함으로써 한국민족문제를 미국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하와이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며 학생들에게 민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현실정치와 직면하면서 시민종교의 특성을 더욱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윌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직 중일 때 파리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평화조약이 맺어졌다.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은 파리평화회의에 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미 국무부에 여러 번 편지를 보냈음에도 거절당했다. 이후 이승만의 외교활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

40) (Keefauver 2003, 112).

편을 위해 개최된 워싱턴회의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국 내 한인 및 현지인 기독교 네트워크는 이승만의 워싱턴회의 외교를 뒷받침했다. 워싱턴회의에서 비록 독립을 명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한인들의 독립의지를 천명하는 공공외교적 효과가 있었다(김명섭, 김정민 2017).

1918년 대한인국민회(KNA) 대표로서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전문을 발송했다. 민찬호는 하와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목사로서 이승만과 협력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으며 정한경은 감리교인으로서 일찍이 미국에서 공부한 후 한국의 독립활동을 하는 이승만과 협력하고 있었다. 1919년 파리평화회의 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의 활동은 이승만연구원에 소장된 영문서한에 자세히 나타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 겸 구미위원부 의장 이승만은 임병직을 전속 비서로 임명하고 언론인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와 변호사 스태거스(John W. Staggers) 등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당시 구미위원부는 워싱턴 D.C. 에 위치하고 있었다. 구미위원부의 영문명칭은 Korean Commission로써 유럽과 미국을 관할하는 독립운동 본부라는 뜻으로서 지어진 것이다.⁴¹⁾

구미위원부(Korean Commision)는 당초 외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라 구미방면에서 정부의 행정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필라델피아의 통신부와 프랑스 파리에 설치되었던 주파리위원회를 구미위원회에 통합시키고 유럽과 미주방면의 외교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⁴²⁾ 구미위원부의 위원장은 파리에서 돌아온 김규식이었으며 이대위, 임병직 등이 위원장을 보좌하여 외교업무를 수행하여 나갔다. 그러나 위원부에는 이들 이외에 미국인으로써 우리의 독립외교활동에 적극 협조한 사람이 많았다. 즉 위원부에 고문으로 돌프(Fred A. Dolph)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도와주었는데 그는 당시 시카고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하고 있다가 위원부의 고문으로 초빙되었던 것이다. 또한 변호사 스태거스와 INS(International News Service)통신사 기자 윌리엄스가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코리아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위원회의 선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였다.

특히 윌리엄스는 주한 미국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3·1운동 당시 일제의 만행을 촬영한 사진을 자료로 하여 기사를 작성, 각 언론기관에 배부함으로써 미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사진은 일본군인들로부터 십자가형틀에 사형을 당한 코리안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그렇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한 코리안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⁴³⁾

이승만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받았던 추천서들은 이승만이 1904년 처음 미국

41) Korean Commission을 한국위원회 혹은 한국위원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당시의 쓰임에 따를 필요가 있다.

42)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3, P.247.

43) 임병직저 외교회고록 임정에서 인도까지 p.123

에 갔을 때 큰 효과가 있었다.⁴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집정관 총재로서 이승만의 서한을 통한 외교활동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발달한 서구문명에 있어서 효력이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열릴 강화회의에 참석할 강대국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이승만의 편지들 중에서 1919년 6월에 쓰여진 편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이승만이 각국 정상에게 보낸 외교서한들

1919년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발신날짜	6월 16일	6월 16일	6월 16일	6월 14일	6월 18일
수호(통상)조약 명시	1883년	1882년	1886년	1884년	
거중조정 조항 명시	명시	명시	-	-	-

이승만이 편지를 보낸 국가를 살펴보면 당시 이승만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승만이 1919년에 편지를 보낸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국가의 대통령과 장관, 혹은 수상에게 중복하여 보낸 경우도 있다. 당시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던 일본의 황제에게도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독일이나 러시아에 편지를 보낸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1919년 6월 16일에 이승만은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영국의 로이드 조지 수상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로 편지를 보낸다. 곧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파리강화회의를 준비하면서 쓴 것이었다. 편지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에 대해 역설하고 김규식을 대표로 보낸다는 것과 파리에 있는 한국인 대표 이관용에게 위임한 전권 하에 일전에 보낸 전보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중요한 것은 이승만이 1883년에 수립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을 내세우며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에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당시 조약의 1항에 언급된 "거중조정(good offices)"의 내용을 언급하며 영국과 한국 사이의 약속(covenant)을 기억하라고 거듭 주장한다.

1883년에 처음 맺어진 조영수호통상조약은 1894년에 영국 측의 주장에 따라 수정되었는데, 철저한 불평등조약이었으며 "거중조정"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승만이 영국 수상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외교서한이 영국 수상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조영수호조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영국 수상에게 보낸 외교서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44) 신약성경의 3분의 1 분량이 바울이 쓴 서한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100시간 만에 쓴 편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움직이다” (중앙일보 2011/4/2). <https://news.joins.com/article/5290223#none> (검색일 2021년 4월 14일).

한다.

이승만이 저술한 『독립정신』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주의하라고 쓰여있으나, 1919년 당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서한들 속에는 무조건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닌 약속을 이행하라는 상대국가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이승만 2010). 이러한 태도는 영국 수상에게 쓴 편지뿐만 아니라 미국 트랜튼(Trenton)⁴⁵⁾에서 행한 연설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1882년에 맺은 조미 수호통상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을 기억하여 어려움에 처한 한국인을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1919년 6월 14일 이승만이 윌슨에게 보낸 문서에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졸업생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직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다.

1919년 6월 14일에 이승만이 프랑스 대통령 푸앵카레(Raymond Poincare)에게 보낸 외교서한에는 1886년에 프랑스와 한국(당시 조선)이 맺은 조약을 기억해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다. 1919년 6월 14일에 이승만이 이탈리아의 왕에게 보낸 외교서한에는 1884년에 이탈리아와 맺은 조약을 기억하여 한국의 문제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선처하고 있다. 1919년 6월 18일 이승만이 일본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른 국가에 보낸 서한과는 달리 조약이나 거중조정 조항은 없으나 과감하게 한국땅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교서한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외교적 의지가 담겨있다고 읽혀진다.

1919년 4월 2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일본제국의 그늘에 가려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 받지 못한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도로써 편지를 이용하였다. 파리강화회의를 통해 한국의 독립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19년 6월에 이승만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반으로서 강대국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외교서한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당성 및 각국과 맺은 조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 타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고자 하는 시도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거중조정 조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을 맺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는 친구의 나라에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을 일깨우는 국서(國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 이승만의 기독교 네트워크는 제1차 미국체류 시기보다 종교적 민족주의 특성이 약화되고 시민종교적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1차 체류기에 미국 대학들에서 미국의 역사를 공부했던 이승만은 시민종교적 특성을 실전에서 경험하게 된다. 하와이에서 『한국교회핍박』을 저술함으로써 한국민족문제를 미국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며 학생들에게 민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현실정치와 직면하면서 시민종교의 특성을 더욱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45) 트랜튼은 1776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전이 벌어졌던 장소이다. 이승만의 친구 해리스가 트랜튼의 그린우드 애비뉴교회(Trenton Greenwood Avenue Church)에 재임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프린스턴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2.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기독교 네트워크와 대미외교

미국 종교사회학자로서 시민 종교의 영향을 연구한 벨라는 미국 독립의 선언의 밑바탕에 있는 사상은 1789년 프랑스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의 호치민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Bellah 1967, 93).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영국에서 거주하며 시민권을 취득하여 생활하던 와이즈만과 달리 이승만은 미국에서 장기체류하며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었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집정관 총재(대통령)로서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로부터 26년 후인 1945년 9월에는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서한에 대한 답장을 받게 된다. 그 동안의 청원외교활동의 성과도 어느 정도 있었겠으나 이승만과 트루먼 사이를 연결해 준 매개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서한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을 통해 이렇게 한국현대사에서 중요역할을 하였으나 잊혀져있던(missing) 연결고리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933년 이승만은 미국을 출국한 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여 제네바에서의 국제회의를 통한 외교활동⁴⁶⁾ 마치고, 소련비자를 취득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이승만의 모스크바 방문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면 이승만은 다시 미국으로 가지 않고 유라시아대륙에 계속 체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방문 당일 모스크바 공산당국에 의해 추방되었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유럽 등지의 경험은 이승만의 지정인식을 조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은 시시각각 다변하는 국제정세를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활동을 했다. 특히 미국 신문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모아서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공공외교활동에 사용했다(김정민·김명섭 2019). 이승만은 단지 신문을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서철로 제작하여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특한 정리방식을 활용했다. 당시 국제사회 환경을 반영한 기사들이 게재된 잡지들의 전체의 면을 사용하여 유사한 시기에 작성된 신문기사들을 잘라서 붙이는 방법을 통해 출판 및 매체의 수용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⁴⁷⁾ 김정민·김명섭의 연구(2019)에 따르면 1933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연맹외교는 제한된 외교경비, 일본 외무성 소속 박석운의 감시, 그리고 조직적 뒷받침의 결여 속에 전개되었으나 미국 정계 인사들과 중화민국대표단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으로 미루어보아 ‘국제연맹에 성명서를 배포·회람하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목표들은 성취’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기간에는 매클레인(Paul McLean)의 The Art of Network에서 밝힌 네트워크

46) 김정민, 김명섭. 2019. 「만주사변 발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연맹외교」, 『한국정치학회보』, 53집. (1), 5-29. 이 연구에서는 ‘국제연맹외교’의 개념을 다각적으로 활용했다.

47)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에 소장된 이승만문서 중 다량의 문서에 신문기사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연결 방식 중 다시 1차 체류기에 나타났던 추천서한 교신의 특징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McLean 2007).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승만은 워싱턴 D.C.로 이동하여 독립활동을 전개하다가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열리는 곳까지 찾아가지만 대한인 대표로서 참석이 불가하게 되었다. 이 때 워싱턴 D.C.에 있는 지인에게 요청하여 해리스 목사를 통해 트루먼 대통령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일이 있었다.⁴⁸⁾

이 때 역시 서한추천방식이 활용되어 해리스 목사가 트루먼에게 보낸 글에 이승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미국은 코리아를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기게 되었다. 트루먼은 루즈벨트가 급히 사망하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었는데, 부통령으로서 재임당시 상원의장의 역할을 겸임하게 된 바 상원 원목이던 해리스와 가까운 관계를 쌓게 된 계기가 있었다.

이와 같이 국제회의에 코리아의 독립을 호소하는 가운데 2차 체류기와 같이 ‘스스로를 대표로서 표현’ representations of the self의 방식이 아닌 1차 체류기와 유사한 서한 추천방식이 활용된 것은 이승만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상황도 작용했겠으나 2차, 3차 체류기도 외교독립 활동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리스 목사와 같은 기독교 네트워크의 지원은 결과에 관계없이 1945년에 미국 대통령직을 맡아 1953년까지 재임한 트루먼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1939년 하와이에서 워싱턴 D.C.로 활동거점을 옮긴 이승만은 우선 일본의 제국주의적 실상을 알리는 내용의 저서 Japan Inside Out을 탈고한 다음 미국인 친구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한국독립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⁴⁹⁾ 이승만 부부가 워싱턴 D.C. 소재 파운드리교회의 교인이 된 시점은 1939년 말이었다. 이승만과 푸랜시스카 부부는 1939년 말 파운드리 감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줄곧 이 교회에 출석한다.⁵⁰⁾ 해리스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파운드리 감리교회에는 이승만, 푸랜시스카 부부처럼 오랜 기간 동안 교회성도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인물들도 있었다. 이 교회에서 담임

48) 미국 건국 이후 최장기간 미국 상원 원목(Senate Chaplain)으로 재직한 프레데릭 해리스는 대한민국의 독립, 6·25전후 호국과 재건을 도운 인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공로에 보상하는 태극훈장을 1950년 3월 1일 워싱턴 D.C. 한국대사관에서 수여했다. 해리스는 미국인으로서 일차적으로는 미국 개신교인들과 정치인들 관련된 일에 그의 소명을 다하면서도 쿠바의 혁명에 안타까워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국제공산주의의 흐름을 우려하는 등 국제적인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었다.

49) Japan Inside Out은 미 극동국 혼백(Stanley K. Hornbeck)을 통해 헐(Cordell Hull) 국무장관에게 전달되었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의 부인, 스티imson(Henry L. Stimson) 장관에게는 우편으로 보냈다(고정휴 2004, 427).

50) 해리스의 파운드리 재임 25주년 기념 축하메시지에서 이승만의 글 참조. 프레데릭 B. 해리스는 한국인들과의 인적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이승만은 또한 재워싱턴 D.C. 한인들과 해리스의 기독교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맺게 된 해리스 박사 부부는 이승만 박사 부부와 평생 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⁵¹⁾ 1814년에 창립된 파운드리교회는 전통적으로 미국 전직 대통령들과 인연이 깊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포크(James K. Polk),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러더포드 헤이즈(Rutherford B. Hayes) 등이 이 교회에 방문하거나 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한 기록이 있다(Calkin 1968).

이승만은 1941년 6월 6일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으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대표로 임명 받은 후부터는 워싱턴 D.C.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 외교활동을 전개해나갔다. 중국 중경 소재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소앙⁵²⁾은 워싱턴 소재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이승만을 임시정부의 공식외교대표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미국 국무부 국무장관에게 알렸다.⁵³⁾ 이 시기부터 대한인총대표회의 때처럼 개회시 기도순서로 시작하는 등 최소한의 기독교적 전통을 유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교와는 분리된 대미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1941년 7월에 플레밍 레벨(Fleming H. Revell)사를 통해 Japan Inside Out가 출판되기까지 제2차 미국체류기에 출판된 『독립정신』처럼 출판매체를 둘러싼 기독교 네트워크와 대한독립운동이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Revell사의 기원은 무디(Moody)가(家)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YMCA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었다. 저자의 영문명 Syngman Rhee으로 영문으로 저술,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발행된 이 책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를 통해 언론매체에도 소개되었다.⁵⁴⁾ 이승만은 당해 봄에도 플레밍 레벨 출판사와 교신하며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다.⁵⁵⁾ 출판사 대표 바부어(William R. Barbour)⁵⁶⁾

51) *Together* 1957년 10월호에서 해리스는 10년간 이승만의 목사였다고 고백한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승만이 미국을 떠난 1945년까지라고 고려해볼 때 1936년부터 이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954년 방미 중 파운드리 교회를 방문하여 연설할 때 파운드리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표현했다.

52) 조소앙(趙素昂, 1887-1958)은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 졸업 후 교직 생활을 했다. 3.1운동 후 중국으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만들었다. ‘삼균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민족해방 운동을 이론적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다.

5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1941년 6월.

54) “Korean Warns U.S. Against Japan,” *The Washington Post*, 20 November 1941., “NEW BOOKS ARE EXHIBITED; 2,000 Volumes on Display at National Arts Club,” *The New York Times*, 9 November 1941. 번역본의 제목은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을 일컫는 통일된 제목이 필요하다. 펄벅 여사의 감상문, 출판사와 교신 서한 참고. 이승만이 이 출판사에서 Japan Inside Out을 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기독교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55) Fleming H. Revell Co.→Syngman Rhee (1941.4.29.),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ume IV*, 617.

56) William R. Barbour→Syngman Rhee (1941.5.7.),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ume IV*, 619.

는 레벨(Revell)의 조카로 1931년에 경영자가 되었다. 당시 한길수의 미국에서의 활동은 이승만보다도 더 활발했고, 그의 활약상은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승만보다도 좋은 인상을 갖도록 했을 수도 있으나, 이 책 출판을 계기로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정치외교활동과 예언자적 관점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⁵⁷⁾

해리스(Frederick Brown Harris, 1883-1970)는 미국 역사 상 가장 오랜 기간 미국 상원의 원목으로 재직하며 워싱턴, D.C.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던 인물이다. 1942년 10월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행정부 시기 미국 상원의 제56대 원목(US Senate Chaplain)에 취임한 해리스는 이후 해리 S. 트루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그리고 린든 B. 존슨 행정부 시기 1969년에 이르기까지 약 24년 동안 미국 상원의 원목으로 봉직했던 인물이다. 해리스가 목회를 담당했던 파운드리감리교회의 교인이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경험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국가이다. 조지워싱턴의 독립정신은 자유와 신앙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개신교인이 많은 것과 미국 의회제도의 연관성이 깊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행정부 시기 미국 상하원의 의석분포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당시 부통령은 알벤 바클리였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또 다른 인물은 스태거스(John Wesley Staggers)이다. 1887년에 출생한 스태거스는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미국의 전문직 종사자였다. 구미위원부(Korean Commission)의 초대 법률고문을 역임한 돌프(Fred A. Dolph)의 동료였으며, 이승만과는 1910년대 후반부터 알게 된 사이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1941년경부터는 이승만과 주미외교위원부의 법률고문 역할을 담당했으며, 자기소유 건물에서 주미외교위원부 사무실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스태거스는 자비를 들여 이승만의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스태거스는 당시 재정난을 겪고 있던 구미위원부에 도움을 주었다. 한미협회 이사회의 법률고문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미협회 구성원으로서 한인의 대미교섭문서들을 작성하고 미국 국무부와 서신을 교환하는 등 미국 내에서 한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미국 법무부와 국무부에 윌리엄스(J. J. Williams)와 함께 이승만의 ‘대리인(agent)’으로 등록하기도 했다.⁵⁸⁾ 이 시기 스태거스와 함께 주목되는 인물은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이다. 국제통신사(INS, International News Service) 기자로서 일본인들로부터 학정을 당하는 한인들의 사진을 기사에 다룬 경력이 있는 윌리엄스는 1919년 경부터 코리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국 언론계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다.⁵⁹⁾

1942년 1월 9일, 해리스 목사는 변호사 스태거스(John W. Staggers), 언론인 윌리

57) 고정휴. 2000. 「이승만과 구미위원부: 초기(1919-1922)의 조직과 내부갈등에 관한 재조명」, 유영익 편.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58) 이승만일기 각주 재인용

59) 신재홍 1982, 275.

엄스(Jay Jerome Williams)와 공동으로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글에 서명하여 미 국무장관에게 제출했다. 누가 이 글을 초안했는지 누구의 아이디어로부터 이 글이 나오고 미국 정부에 제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글 마지막 부분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분명하다. 이 문서는 세 명의 미국인이 한국에 대해 미국이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들은 이승만의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한 미국인들 중에서 1939년 이후 이승만이 워싱턴 D.C.에서 활약할 당시 가장 가까이에서 도운 인물들 중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장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촉구하기 위한 이승만의 외교 전략은 미국 사회 내부에 한국독립에 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과 미 국무부를 상대로 교섭활동을 벌이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난 인물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를 조직하고 이 단체들을 통해 대미교섭활동을 촉구했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에 대한 미 국무부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해리스, 스태거스, 윌리엄스는 이승만이 재미 미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기독교인친한회(Christian Friend of Korea) 임원으로도 참여했는데 이 단체에는 코리아의 독립을 돕기 원하나 정치적으로 드러나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리스, 스태거스, 윌리엄스는 1월에 이어 코리아 관련 호소문을 작성하여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스티imson(Henry L. Stimson)⁶⁰⁾ 전쟁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특히, 1942년 2월 4일자 스티imson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것은 미국 시민으로서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 깊게 생각할 부분이며 긴급하게 대통령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미국의 격려와 지원을 요청했다.⁶¹⁾

일본인들에 대항하는 혁명의 일환으로 2천 3백만의 한국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지도자인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품, 인품,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그의 재능과 봉사는 지난 40년간 적들에게도 알려져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목소리가 한국인들에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국가정책은 압제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한 국가로서 우리는 코리아의 일본합병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리아와 애초에 맺은 조약을 폐지하지도 않았습니까.⁶²⁾

60) 미국의 정치가이자 법률가(1867-1950). 필리핀 총독을 지냈으며 일본의 만주 침략을 반대하는 ‘스티imson주의’를 주창하였다. 이승만의 저서 Japan Inside Out이 출간되고 나서 스티imson에게 이 책이 전달되기도 했다(고정휴 2004, 427).

61) Frederick Brown Harris, John W. Staggars, Jay Jerome Williams to Henry L. Stimson. February 4, 1942.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소장문서(이하 이승만문서).

62) Frederick Brown Harris, John W. Staggars, Jay Jerome Williams to Henry L. Stimson.

이처럼 해리스, 스태거스, 윌리엄스가 1882년 미국과 코리아가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관해 언급하며 한국문제 해결을 후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승만이 펼쳤던 지론(持論)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1942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 동안 한미협회와 재미한족연합회가 연합하여 ‘대한인자유대회’를 개최했다. 미일전쟁 개전 이후 미국사회에 퍼져있던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은 코리아(Korea)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⁶³⁾

이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여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켰는데, 이러한 관심이 모여 라파예트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인자유대회에는 백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참석했다. 1919년 3·1혁명 23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 거족적 모임에서 이승만은 대회 의장직을 맡았다. 윌리엄스는 27일 사회를, 스태거스는 28일 회의의 사회를 맡았다. 해리스, 스태거스, 윌리엄스는 세 명 모두 청중 앞에서 연설을 했다. 워싱턴 D.C. 라디오 방송(WINX)으로 실황이 중계되는 가운데 해리스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⁶⁴⁾

저는 나의 다정한 친구이며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있는 쇼우(Shaw)씨⁶⁵⁾를 통해 오래 전부터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국 이상으로 코리아를 사랑했으며 지금도 코리아에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지금의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오리라는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 이승만 박사와 한인자유대회에 관여할 수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전쟁이 끝나면 코리아가 다시 자유와 독립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⁶⁶⁾

당일 대한인자유대회의 사회자 스태거스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다. 미국 정부를 향한 연중유골의 발언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었을 당시의 상황은 전투를 나가기에 앞선 전사들의 태세와도 같았다.

son. February 4, 1942. 이승만문서.

63) ‘코리아(Korea)’는 대한민국 수립 전 1897년 이전의 조선, 이후 대한제국,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6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0. 1942년 3월 1일. 한인자유대회회의록. 재조선 미국선교사들은 일본의 선교사추방령에 의해 1940년 이후 모두 본토로 돌아가야 했다. 윌리엄 쇼는 귀국 후 파운드리교회에 방문하여 선교경험을 나누었다. “A Visitor From Korea.” (Foundry Facts 1941/5/29).

65) 윌리엄 얼 쇼(William Earl Shaw, 한국명 서위렴(徐煒廉), 1890-1967)는 1890년 시카고에서 태어나 1921년 평양 광성보통학교 교사로 한국에 온 미 감리회 선교사였다. 6.25전쟁 당시 주한미군에 자원 입대하여 군목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육군에 군목제도를 도입했다. 그의 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n Hamilton Shaw, 1922-1950)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상륙작전에 참가한 후 해군 중위로 제대했다가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다. 1950년 9월 22일 서울수복작전 도중 전사하여 양화진 묘지에 안장되었다.

66) “한인자유대회회의록” 1942년 3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0.

이제 전쟁의 암운이 다시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전세계 자유애호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한국인들은 베르사이유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친구인 우리 미국인들은 그 요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82년 5월 22일 미국과 한국은 신성한 수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조약은 미국의 상원에 의해 비준되어 1883년 6월 4일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공포했습니다. 그 조약의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가 쌍방의 어느 한 정부를 부당하게 그리고 침략적으로 대우할 경우 다른 정부는 그 사실을 아는 즉시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주선에 나섬으로써 상호우호의 유대를 보인다.”

이 조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 조약은 미국 정부에 의해 파기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르사이유에 모인 다른 나라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무시했습니다. 일본이 1905년 아시아 대륙 정복의 1차 목표인 한국을 점령했을 때에도 미국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우리 정부와 한국 정부간의 엄연한 조약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 조약을 엄격하게 존중했다면 과거 37년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친구인 우리 미국인들은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함으로써 1882년의 공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과거 37년의 역사가 장래에는 다시 반복되지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⁶⁷⁾

스태거스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시절부터 법률적 자문을 해오면서 한국역사와 상황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와 같은 지식을 적극 활용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한미관계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기여한 스태거스 역시 기독교회친한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기독교인이었다.

한편, 해리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10월 10일 미국 상원의 원목에 취임했다. 1942년부터 1946년까지 제77회부터 제79회까지의 상원회기 중 해리스가 상원에서 기도한 내용들은 『기도(Prayers)』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Harris 1946). 상원 회의 시작 전에 원목과 부통령은 부통령 집무실에서 회견을 가진 후 정오가 되면 함께 강단으로 향했다. 진보주의자로 알려지기도 했던 월러스(Henry A. Wallace) 전 부통령은 “해리스가 강단에서 올린 기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나는 그의 기도 속에서 영감(inspiration)을 발견했다”고 회고했다(Harris 1946, VII).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해리 트루먼이 제33대 미국 대통

67) 대한인자유대회 회의록.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령에 취임한 당시 부통령으로서 상원의장을 겸했던 트루먼은 상원 원목 해리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1945년 1월 21일에는 파운드리교회의 예배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었다(Calkin 1964). 해리스는 루즈벨트가 사망한 날 상원의회에서 “트루먼 신임 대통령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여 달라”는 기도문을 낭독했다(Harris 1946, 160).

1945년 4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와 재향군인 빌딩(Veteran's Building)에서 동시에 진행된 유엔창립총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 후처리와 국제질서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합국 5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 파견할 대표단 선정을 놓고 미주한인사회는 갈등을 빚었다.⁶⁸⁾ 한국대표단은 공식 초청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다.⁶⁹⁾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승만은 1945년 5월 2일 측근에게 다음과 같은 비밀 서한을 보내 한국 대표단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해리스 목사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다. 다만 상원 원목인 해리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주의도 덧붙였다.⁷⁰⁾ 이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종교인의 정치활동을 은연 중에 조심하는 시민종교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특징이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표단에게 우리의 주장을 지지하라는 지시를 한 두 마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일 것이다. 기밀 정보에 따르면, 송자문(T. V. Soong)이 이번주 금요일 워싱턴 D.C.로 갔다가 다음주 월요일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다고 한다. ... 당신이 보기에 바람직하다면 해리스 박사에게 이 상황을 전달해주기 바란다. ...⁷¹⁾

해리스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1945년 5월 5일 서한을 보내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임하고 있던 한국대표단과 이승만 박사를 후원했다. 이는 해리스가 트루먼에게 이승만을 추천하는 성격의 서한과 같은 의미였다.

68) 국제연합창립총회 한국대표단 선정 과정에서 주미 한인사회가 겪은 갈등과 관련된 연구는 (이정식, 2000; 고정휴 2003; 정병준 2005; 홍선표 2005)를 참고. 홍선표는 앞의 연구와는 달리 이승만 중심의 임시정부 대표단의 입장보다 재미한족연합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했다(홍선표 2005).

69) 이승만을 반대하는 세력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장에 가서 이승만의 대표단과 서로 경쟁을 벌이다 한 팀으로 참석하는 데 결의했으나 이미 미 국무성의 알저 히스(Alger Hiss)는 한국 대표단의 분열상을 이유로 한국인들의 서류접수를 거부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이승만과 동행한 인물은 송헌주, 이살음 목사, 윤병구 목사, 정한경, 유경상, 임병직이다(유영익 1996, 200-205).

70) 이 서한의 머리부분에 Confidential.(기밀사항)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영인본에 의하면 푸랜시스카나 올리버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Syngman Rhee to [?Francesca Rhee/Robert T. Oliver]. May 2, 1945. 이승만문서.

71) Syngman Rhee to [?Francesca Rhee/Robert T. Oliver]. May 2, 1945. 이승만문서.

여기 미국지역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로 많이 알려진 이승만 박사는 그의 삶을 코리아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코리아 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입니다. 우리들 중 몇 사람은 모든 요건을 갖췄지만 코리아가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거기 있고, 만약 정의의 힘이 코리안들의 긴박한 요청이 받아들여지도록 한다면, 그들의 자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있습니다.⁷²⁾

트루먼 대통령은 3일 후인 5월 8일에 해리스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⁷³⁾ 트루먼이 해리스에게 회신을 보낸 다음날인 1945년 5월 9일 해리스와 트루먼은 백악관에서 접견했다. 당일 12시 45분부터 15분간 만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다.⁷⁴⁾ 해리스 목사와 트루먼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고 일주일 후인 5월 15일에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 모리스 호텔에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다. 이 서한의 도입부에서부터 이승만은 코리아 관련 알타밀약이 밝혀진 사실을 언급한다. 1905년에도 미국의 비밀협약에 의해 코리아가 일본에게 팔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비밀협약 시도가 밝혀졌다고 기술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코리아가 발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⁷⁵⁾ 유엔 창립총회가 열린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비록 한국대표단이 공식 참가자격을 얻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승만과 해리스, 트루먼의 삼각외교적 연결망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유지운, 김명섭 2018).

이승만은 1945년 미일전쟁 종전 후에 아직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었다. 그 때 이승만은 각국의 정상들에게 전보문을 보내어 코리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8월 15일에는 소련의 스탈린 대원수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전승과 세계평화를 축하한다”고 했다.⁷⁶⁾ 8월 21일에는 영국 애틀리 수상에게 “코리아가 또 다른 폴란드가 되지 않도록 거중조정 조항을 실행해주시길 요청한다”는 내용의 전보문을 보냈으며, 중화민국 장개석 총통에게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내셔서 코리아의 독립을 명목상으로만 승인하지 않도록 부탁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⁷⁷⁾ 이어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도 전보문을 발송하여 “신탁통치 혹은 분단정책은 피의 내전을 야기하오니 부디 코리아의 완전독립을 주장해주시길” 당부했다.⁷⁸⁾

72) Frederick Brown Harris to Harry S. Truman. May 5, 1945. Truman Papers, Official File. OF 471: Korea. Harry S. Truman Library & Museum(이하 HTLM).

73) Harry S. Truman to Frederick Brown Harris. May 8, 1945. Truman Papers, Official File. OF 471: Korea. HTLM.

74) Daily Appointments of Harry S. Truman. Wednesday. May 9, 1945. HTLM. 일정표에 의하면 Rt. Rev. Charles W. Flint도 같은 시간에 접견했다.

75) Syngman Rhee to Harry S. Truman. May 15, 1945. 이승만문서.

76) Syngman Rhee to Joseph Stalin. August 15, 1945. 이승만문서.

77) Syngman Rhee to Clement R. Atlee. August 21, 1945. 이승만문서; Syngman Rhee to Chiang Kai-shek. August 21, 1945. 이승만문서.

78) Syngman Rhee to Harry S Truman. August 27, 1945. 이승만문서.

이와 같이 일본군과 맞서 승리를 차지한 영국, 중화민국, 미국 등의 국가정상들에게 외교전문을 발송하는 방식은 1919년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집정관 총재의 자격으로 파리평화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냈던 모습과 유사하다. 특히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영국의 수상에게 작성한 전문에 ‘거중 조정’조항을 언급한 것은 1919년에 작성한 서한에도 핵심 내용으로 넣었던 사항이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1919년과 달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장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대표로서 감행한 것이었다. 장기간의 미국체류기를 보내면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초기에 미국에 올 때와는 달리 제삼자를 통해 소개를 받는 입장에서 ‘자국민을 스스로 대표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친 것이라 해석된다(McLean 2007).

1945년 8월 27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에는 비록 짧지만 코리아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이 담겨있다. 해방직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발송한 것은 ‘코리아의 완전한 독립(complete independence of Korea)’을 국제사회가 지지하도록 도와달라는 의도에서였다. 그의 국제정치에 대한 해안은 ‘미국이 지금 코리아를 돕지 않으면 코리안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civil war)에 내몰릴 것’이라고 예견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 일은 약 5년이 지나지 않아 6.25전쟁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이승만은 “독립민주국으로써 내 조국 코리아의 다가올 운명은 대통령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속히 코리아에 가기를 희망하며..... 적절한 권위(authorities)를 통해 코리아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며 특별한 요청을 남겼다.⁷⁹⁾

이렇게 전보를 통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표현한지 한 달 정도 후인 1945년 9월 28일, 아직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던 이승만은 프레데릭 B. 해리스 원목을 통해 트루먼 대통령에게 태극기를 선물하며 다음과 같은 서한을 남겼다.

나는 나의 친구이자 목사인 프레데릭 브라운 해리스에게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독립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에 대하여 각하께 이 신의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깃발은 한국 민족(the Korean Nation)을 의미하며, 곧 전체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⁸⁰⁾

이승만이 해리스에게 부탁한 이 태극기는 푸랜시스카와 하셋(William D. Hassett)을 통해 트루먼에게 전달되었다. 9월 28일 해리스에게 전달을 부탁했으나 해리스가 푸랜시스카에게 하셋을 통해 전달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기 때문이었다.⁸¹⁾ 당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고유 민족을 상징하

79) Syngman Rhee to Harry S. Truman(1945.8.27.),

80) Syngman Rhee to Harris S. Truman. September 28, 1945. HTML.

81) Syngman Rhee to Harry S. Truman With Related Material and Reply From Rose Conway. October 17, 1945. HTML.

며 장차 수립될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을 선물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코리아가 해방을 맞이한 과정에서 트루만이 행사한 역할에 대한 감사표현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IV. 결론

이 연구는 한국과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와이즈만의 국가수립 이전 외교 사회연결망을 추적하여 어떻게 이 수십년간 중립외교로 일관한 미국의 국가리더십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인물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주목한다. 1939년 워싱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은 파운드리감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 담임목사 프레데릭 브라운 해리스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해리스는 1942년 미국 상원 원목이 되고, 이후 미국 정계 인물들에게 한국독립문제를 호소하는 데 앞장섰다. 1945년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이승만을 도와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서한 등을 통해 트루만에게 호소했다. 이승만과 해리스 주변의 미국 개신교인들도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의 정신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트루만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인적사회연결망의 가운데에는 진리(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미국 건국세력들이 신봉한 이념이 있었다.

이 연구는 트루만과 와이즈만을 연결하고, 트루만과 이승만을 연결하여 국가동맹의 단계로까지 이어지는 국제외교사회적 변화를 이 중심인물들과 주변인물들이 남긴 서한과 주요 외교관계문서들을 통해 새롭게 발견했다. 이 작업을 통해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외교 및 친선관계의 조명하고, 미국 내 유대인들과 개신교인들이 정부의 실리중심의 중립외교정책에 정면으로 호소하여 약소 민족의 편에 섰던 미시적 역사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재미한인들과 미국 기독교인들의 노력을 배경으로 해리스, 이승만, 트루만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관계 속에 기독교의 역할과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 나아가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에 미친 결과를 설명해보고자 했다. 이에 앞서 당시 트루만 행정부의 외교정책 및 방향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1948년 같은 해에 독립을 선언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았다. 미국 유대교인들의 영향이 이스라엘 독립의 지도자 와이즈만에게 도움을 주어 트루만 대통령의 이스라엘 독립 승인 및 건국에 기여한 사례연구는 본 연구주제와 상응하여 보편세계사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연구의 객관성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미국 기독교인 네트워크를 통해 트루만 대통령의 결정을 움직인 대한민국의 사례는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관련성(유대인들로부터 유래한 기독교와 유일신 사상중심의 유대교의 유사성)에 견주어 이스라엘의 사례에 비추어 봄으로써 냉전 시기 종교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미국 기

독교인 해리스와 이승만의 관계가 트루만의 대외정책에 준 영향을 한국인의 해방에 미친 영향, 즉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셋째, 냉전시기 해리스와 이승만의 관계에서 형성된 공감대는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맞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트루만 대통령의 6.25전쟁 참전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897년부터 약 50년간 동시대에 활동한 양국의 대표적 독립의 지도자들 중에서 와이즈만과 이승만의 독립외교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당시 미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두 국가의 독립에 영향을 미쳤으며, 양국의 사례들 간에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었는지를 고찰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초대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비교함으로써 제국주의 팽창과정, 냉전의 양극체제 속에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지식의 탐구를 통한 현대문명의 발전은 사회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관점의 차이로 인한 세계관의 갈등은 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20세기 전반기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세계대전 시기에 걸쳐 와이즈만은 유대인(Jews)의 정체성을 갖고 시온주의 사상을 국가수립의 이념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이승만은 한인(Korean)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기독교정신을 독립의 정신과 접목하여 정부수립과정에 적용하고자 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은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측면에서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을 겪었다.

세계대전 시기 와이즈만과 이승만의 독립외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재능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하고, 둘째, 해외거주 디아스포라 동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했으며, 셋째, 종교적 관념에 기초한 네트워크 확대한 점과, 넷째, 반공주의적 입장을 취한 점을 들 수 있다. 와이즈만과 이승만의 외교활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와이즈만은 이과적 교육배경을 가진 반면에 이승만은 인문사회적 교육배경을 갖고 있었다. 둘째, 와이즈만은 팔레스타인 및 아랍세계와 대결, 이승만은 북조선 및 공산세계와 대결하는 구도속에서 독립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셋째,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전통 민족종교였던 반면에, 기독교는 한국의 민족종교는 아니었으며 근간에 유입된 해외선교의 영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및 이승만연구원 소장 문서.
- 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 <https://www.trumanlibrary.gov/>
- U.S. Library of Congress(미국 의회 도서관). <http://www.loc.gov>
-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미국 국립문서보관청.
<http://www.archives.gov>
- 고정휴. 1995. 「독립운동기 이승만의 외교 노선과 제국주의」. 『역사비평』. 31호. 129-187.
- 김명섭, 박재원. 2021. 「제1차 세계대전 전후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 이승만과 박용만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61집 제4호, 165-202.
- 김명섭, 김정민. 2017. 「워싱턴회의 시기 이승만의 외교활동과 신문 스크랩」.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2호, 175-198.
- 김승배, 김명섭. 2012. 「베르사유평화체제의 ‘보편적 표준’과 한국과 일본의 이몽(異夢)」. 『국제정치논총』. 52집. (5), 37-68.
- 김왕배. 2003. 「미주 한인 후예들의 민족주의」. 『현상과 인식』. 27권 89호.
- 김원모. 2002. 『한미 외교관계 100년사』.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용기. 1996.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 서울: 글터.
- 김종서. 2005. 『종교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영신. 2018. 「아메리카의 시민 종교는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현상과인식』. 42집. (2), 153-174.
- 유영익. 2002. 『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유영익. 2019.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 비전』. 서울: 청미디어.
- 유지윤, 김명섭. 2018. 「프레데릭 B. 해리스의 한국관련 활동」.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0집. (1), 5-40.
- 유지윤. 2022. “이승만의 기독교 네트워크와 미국에서의 정치외교활동, 1904-1954”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이강근. 2008. 『이스라엘 정치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이덕희. 2015.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서울: 북앤피플.

- 이승만. 2019. 『우남 이승만 전집 3: 한국교회핍박 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이승만. 2019. 『우남 이승만 전집 1: 독립정신』.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임병직. 1964. 『林炳稷 回顧錄』. 서울: 女苑社.
- 정일준. 2009. 「한미관계의 역사사회학: 국제관계, 국가정체성, 국가프로젝트」. 『사회와 역사』. 84집. 217-261.
- 한표욱. 1996. 『이승만과 한미외교』. 서울: 중앙일보사.
- 홍선표. 2012.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미국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3집. 169-241.
- Abrams, Philip. 1982. *Historical Sociolo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Bellah, Robert N. 1975. *The Broken Covenant: American Civil Religion in Time of Trial*. New York: Seabury Press.
- Gorski, Philip. 2019. *American Covenant: A History of Civil Religion from the Puritans to the Present*.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iffis, William Elliot. 1897.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 Scribner's Sons.
- Hamby, Alonzo. "Harry S. Truman: Foreign Affairs." <https://millercenter.org/president/truman>
- Harris, Frederick Brown. 1946a. *Prayers, Offered by the Chaplain Rev. Frederick Brown Harris, D. D., LL. D., LITT. D. at the Opening of the Daily Sessions of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Seventy-Seventh, Seventy-Eighth, and Seventy-Ninth Congresses, 1942-1946*.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Jazbec, Milan. 2013. "The Sociology of Diplomacy: A general outline with some aspects and dilemmas." *Perspectives (Praha)* 21 (1):22.
- Lew, Seok-Choon, David P. Fields, Young Seob Oh, Ji Eun Han, eds. 2015. *The Diary of Syngman Rhee: 1904-34&1944*.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e Syngman Rhee Institute, Yonsei University.
- Lew, Young Ick, Young Seob Oh, Steve G. Jenks, Andrew D. Calhoun, eds. 2009.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1904-1948, IMKS Materials Series No. 10*. Seoul: Yonsei University.
- Lew, Young Ick. 2014. *The Making of the First Korean President*.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ackenzie, Frederick Arthur. 1920. *Korea's Fight for Freedom*: Fleming H. Revell.
- MacMillan, Margaret. 2003. *Paris 1919: Six Months that Changed the World*. New York: Random House.
- Manela, Erez. 2007. *The Wilsonian Moment*.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Lean, Paul Douglas. 2007. *The Art of the Network*.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Miller, Herbert Adolphus. 1924. *Races, Nations and Classes*.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Penkower, Monty Noam. 2004. "The Kishinev Pogrom of 1903: A Turning Point in Jewish History." *Modern Judaism* 24 (3):187-225.
- Radosh, Allis, Ronald Radosh. 2009. *A Safe Haven: Harry S. Truman and the Founding of Israel*: Harper Collins.
- Raphael, Marc Lee. 2008. *The Columbia History of Jews and Judaism in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inharz, Jehuda. 1983. "Chaim Weizmann: The Shaping of a Zionist Leader before the First World War."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18 (2):205-231.
- Rhee, Syngman. 1922. *Korea's Appeal to the Conference on Limitation of Armament*. Washington,: Govt. print. off.
- Rhee, Syngman. 1933. *The Koreans in Manchuria*. Paris: Agence Korea.
- Rhee, Syngman. 1941.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 Schmid, Andre.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ombart, Werner. 2001. *The Jews and Modern Capitalism*. Translated by M. Epstein: Batoche Books.
- Stueck, William. 2000. "Syngman Rhee, the Truman Doctrine, and American Policy toward Korea." In *Studies on Syngman Rhee: His Independence*

Activities and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dited by Young Ick Lew.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Press.

Tilly, Charles. 박형신 안치민 역. 1999. 『비교역사사회학』. 서울: 일신사.

Tocqueville, Alexis de. 2004. *Democracy in America*. Translated by Arthur Goldhammer. New York: Library of America :Distributed to the trade in the U.S. by Penguin Putnam.

Weber, Max. 1930.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lated by Talcott Parso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Yoo, Ji-yoon. 2011. "(The) Indomitable Lions: Syngman Rhee and Ben-Gurion's Spirit of Independence."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